

아주대학교 사람들



아주가족 여러분,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주의 3월은 '나와 함께 소통하자, 나와 함께 가자'는 목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지만,
 소통하지 못하는 정보는 배가 끊긴 섬과 같으니 그들은 서로에게 닿으려고 이토록 애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월의 이주인은 봄을 노래하는 새들처럼 끊임없이 재잘거리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잊혀지지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기를 바라면서.....

2012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동아리의 회원 유치 활동이 활발하다. 아주대학교 로봇동아리 'ATOM'을 홍보하고 있는 학생의 모습이 이채롭다.

Letter from President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주가족 여러분
 언제 매서운 추위가 있었냐는 듯 따뜻한 봄기운이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역시 학교는 학생들과 교수님, 여기에 새내기까지 시끌벅적해야 흥이 납니다. 이주의 3월은 울곡관 뒤편에서 동아리들이 신입회원을 유치한다고 목이 쉬도록 사람들을 찾고 있고, 계시관을 비롯해 건물 벽마다 심지어 화장실까지 사람을 구하고, 정보를 전하는 메시지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아무리 넘쳐나는 시대라지만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아둠이 내릴수록 도서관 조명은 환해지고, 연구실의 꺼지지 않는 불빛은 등대처럼 우리 아주동산에 섬처럼 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의 소식을 전하는 학교소식지의 제호가 이번 호부터 <아주대학교사람들>로 바뀌어 계간으로 선보입니다. 왜 '사람들'이란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도, 아주에서 가장 소중한 것도 '사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명성은 그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기술, 인력의 총합과 같습니다. 역사나 전통도 중요하지만 좋은 명성을 유지하고, 확장하려면 인력 그 자체의 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식지를 통해 아주대학교의 교수, 학생, 직원들의 활동을 알리고, 동문과 아주대 관련 인사, 학부모의 바람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주대학교사람들>을 통해 아주인의 활동과 생각을 나누고, 아주인 서로가 서로에게 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확장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주가족 여러분,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총장 안재환
Jae H. Ahn

만남의 이유와 목적은 만들어 가는 것



Special Theme

- 06 대담 이상덕 교수와 이장익 교수
- 10 조우 신입생 김두리 양과 아주대의 첫 만남
- 12 인연 스트라타 트리맵이 이어준 특별한 인연

Story of Ajou

- 14 Power Interview 유전체불안정성 제어 연구센터 조혜성 교수 외
- 18 Research 하나영 교수 '광밴드 솔젤 박막' 연구
- 20 Prof. Column 김경일 교수 "도망갈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 22 Passion 연극동아리 '이몽극회' 흥성인 학생
- 24 Global Campus 국제대학원 나나와 아지의 '대담한 도전'
- 26 People <딸은 엄마보다 한 발짝 느리다> 퍼넨 박정현 학생
- 28 Zoom in 법학전문대학원 탐방
- 30 Alumni Story 'IO 솔루션' 대표 양국현 동문
- 32 Photo Sketch 2011 아주 인터내셔널데이

Ajou News

- 34 Ajou Reporting 2012 입시총평
- 36 News 아주대 주요 소식
교수 및 연구 소식
- 44 Donation 아주대 기부 소식
2011 하반기 기부 안내 및 기부자 명단



c o n t e n t s

Ajou University Magazine 2012. Spring Vol. 1

아주대학교 사람들

아주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아주대학교사람들>은 <http://webzine.ajou.ac.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12년 3월 29일 / 발행인 안재환 / 편집인 노학래 / 발행처 아주대학교 홍보실 031-219-2918 / 기획 디자인 plus81studios 02-542-0810 / 사진 studio polly 김성재

: 아주대와의 만남을 아름답게 만든 세 가지 이야기

만남에 과연 정해진 이유와 목적이 있을까..... 설명할 수 없는 섭리에 이끌려 너와 나, 우리는 그저 만났을 뿐이다. 만남의 이유와 목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찾는 것이고 또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여기 아주대학교와의 만남을 멋지게 만들어 낸 사람들이 있다. <아주대학교사람들>의 첫 호, 첫 특집에는 아주대와의 만남을 아름답게 만들어 낸, 그리고 앞으로 그 만남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낼 아주대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대담>에는 건설시스템공학 이상덕 교수와 교수학습개발센터 이장익 교수가 교육의 본질에 대하여 나누는 진지한 대화를 실었고, <조우>에서는 2012학년도 신입생 김두리 학생과 아주대학교의 설레는 첫 만남을 스케치하고 그녀의 당당하고 야무진 각오를 들어보았다. <인연>에서는 '스트라타 트리맵'으로 학계와 기업의 주목을 함께 받고 있는 최정홍, 권오현 학생과 이경원 교수를 만나 그들의 인연을 회상해 보았다.

06p 대담 이상덕 교수와 이장익 교수 10p 조우 신입생 김두리 양과 아주대의 첫 만남 12p 인연 스트라타 트리맵이 이어준 특별한 인연

EDUCATION,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상덕 교수와 이장의 교수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고 이끌 것인가…….’ ‘학교 學校’라는 학문공동체의, ‘선생 先生’이라 불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자 절대 단언할 수 없는 교육학의 영원한 주제다. 나라가 인정한 ‘잘 가르치는 대학’ 아주대학교의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장의 교수(교육대학원)와 ‘무박 3일 시험’으로 우리 대학교육에 신선한 자극과 도전을 준 이상덕 교수(건설시스템공학)가 만났다. 지금 아주대 강단에는 어떤 변화가 닥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들의 대화를 들어 본다. 정리 이병유(편집실)

교육학의 핵심주제 ‘평가’를 평가하다

이장의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과 ‘토질역학’ 시험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웃음) ‘무박 3일’ 토질역학 시험을 실시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요? 시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상덕 ‘토질역학’은 토목공학과(건설시스템공학) 3학년 1학기 전공과목입니다. ‘토질역학’에 대한 기준 이상의 학습량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1990년 제가 아주대에 올 때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22년이 되네요. 당시 ‘국내 Top 10에 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학생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2박 3일에 걸쳐 시험을 쳤는데, 점점 길어져 7일까지 가기도 했죠.

이장의 학생들의 불만이 없지 않았을 텐데요. 교수님 연구년에도 무박 3일 시험을 치나요?

이상덕 시험의 실행 여부는 학기 초에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중간고사 보기 전 학생들이 이 시험을 칠 것인지 말 것인지 토론하여 결정한 후 제게 알려줍니다. 토질역학 시험은 연구년에도 실시합니다. 선배들이 주축이 되어 시험 준비를 하거든요. 문제 출제와 시험 진행과 관리, 채점 등을 졸업생들이 직접 행합니다. 시험은 토목공학과 1회 선배인 88학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토질역학 시험을 보지 않으면 선배가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장의 토질역학 시험이 과의 바람직한 전통으로 자리매김을 했군요?

이상덕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한 가지 아쉽고 학생들에게 미안한 부분은 상대평가로 진행되기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쳐도 어쩔 수 없이 C나 D학점을 받는 학생이 생깁니다. 상대평가의 잔인함이라고 할까요? ‘평가’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교육학에서는 상대평가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교육학이라는 학문도 궁금하군요.

이장의 초중고에서도 2014년부터는 절대평가로 진행되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대학종합평가’에 상대평가가 중요한 평가 항목이니 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평가는 교육학의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21세기 교육학의 모습은 ‘20세기 초 의학’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오진율은 높고 치료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이죠. 마치 청진기로만 환자를 진단하는 느낌입니다. MRI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 평가’에 있어서 외국은 어떻게 다른가요?



‘파트너십’ ‘인연’ ‘행복’……. 두 교수가 정의하는 교육의 본질은 소박했지만, 그 선은 굵고 난이도는 높았다.

대학은 더욱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면서 서열화 되고 있다.

갈수록 팽팽해지는 대학교육의 현실에 복잡한 이론이나 얇은 꿈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진정성 담긴 이들의 대화가 더 큰 설득력을 갖는다.



이상덕 교수



이장의 교수



이상덕 제가 미국과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미국 학부교육의 질은 매우 평범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대학 서열이 더욱 엄격하여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독일의 경우 학생 평가 기준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역사가 깊다보니 수업과 학습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발성이 우리보다 한층 더 성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업과 시험에 대한 신뢰가 큼니다.

이상덕 교수는 교육의 본질을 이렇게 말한다.
 “좋은 인연으로 평생을 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아닐까요?”

“혼자 활동하는 학생, 학습효율 떨어진다”
이장익 연구와 강의, 평가와 대외활동 등 업무가 많으시죠?

이상덕 아무래도 공대는 가시적인 연구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교수들의 연구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죠. 스트레스도 많고요. 학부 강의와 수업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교육과 연구비도 끌어와야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연구에 계속 몰입할 것인가, 아니면 국내에 안주할 것인가……. 이 힘겨운 여건과 상황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좌절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강의와 학생 교육에 집중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제자들이 어디 가서 못한다는 소리 듣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다행인 것은 아주대 학생들이 착실하고 뛰어나서 잘 따라와 줍니다.

이장익 온라인 강의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덕 물론 온라인 강의가 시대에 부응하는 매우 효율적이고 좋은 교수학습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온라인 강의의 질이러기보다 그것을 소비하는 주체, 즉 학생들의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려서부터의 교육습관이 수동적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 효과를 100%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일일이 눈을 맞추고 강의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더욱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이장익 역시 교육의 핵심을 파악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교육방식이 교육학에서 흔히 말하는 ‘퍼스널 터치’입니다. 교수법에 있어 동기부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술적인 부분보다 수업에 대한 철학, 자세 등이 우선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여러 기술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학생과 교수의 퍼스널 터치가 높아지면,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집중력과 충성도도 올라가 학업의 동기부여 역시 높아 집니다. 그러면 교수님도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수업의 질도 상승하는 선순환이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교수님, 근래 교육 현장의 변화를 말하곤 합니다.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이상덕 요즘 아이들은 2~3년마다 한 세대가 바뀝니다. 그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례로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 좋은 컴퓨터가 있어도 사용을 안 합니다. 왜 안하는지 관찰해보니 집에 똑같은 게, 더 좋은 게 있더라고요.

이장익 교수가 말하는 교육의 본질은 ‘파트너십’이다.
 “교육은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함께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지요.”

이상덕 교수(건설시스템공학 전공)
 • 서울대 토목공학과 졸업
 • Univ. Stuttgart 공학 박사
 • 건설시스템공학연구센터장

이장익 교수(교육대학원)
 • 연세대 교육학과 졸업
 •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교육학 박사
 •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이장익 저는 요즘 학생들은 피자로 해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변화를 실감했습니다.(모두 웃음)

이상덕 해장할 정도로 술을 먹지도 않죠.(더 큰 웃음)

이장익 개인화도 심각합니다. 혼자 학교 와서 강의 듣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집에 가죠. 혼자 노는 아이들의 학습효율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획일화가 없어지고 시대가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학생들의 궁극적인 목표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진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본질은 좋은 인연으로 평생을 가는 것”

이장익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 아이들은 2~3년 미다 한 세대가 변합니다. 연구와 강의, 많은 대외활동을 하면서 제자들의 변화에 세심하게 대응하고 소통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이상덕 교수 한 사람이 정말 여러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연구와 강의는 물론 외부협력과 학생들 카운슬링까지……. 담당교수 혼자 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시스템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학생들의 말을 경청하고 조언해주는 카운슬링 전문가와 프로그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과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고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적인 여유와 함께 학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지요.

이장익 맞습니다. 그리고 교수와 학생이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하고 변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퍼스널 터치, 소통, 파트너십, 이런 어휘가 더 가치 있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그런 면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이상덕 교수님은 훌륭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대학교육에 한류를 탄생시킨 ‘연예 기획사’를 벤치마킹해 보면 어떨까라는 재밌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재를 발굴하고 훈련해서 스타로 키워내는 프로세스에는 분명 명확한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밀도있게 교감하면서 동기부여하는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덕 저는 졸업 후에도 졸업생을 관리하는 학교의 분위기와 시스템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교육의 평생 AS 개념이라고 할까요? 저희 토목공학과는 졸업생이 박사과정 세미나에 참석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토질역학 시험도 졸업생이 주축이 되어 준비하고 있고, 졸업생들이 수시로 과를 찾아와서 현장의 소식과 여러 가지의 실무 아이디어를 주고 갑니다. 저희 과 교육목표도 ‘현장에서 바로 제 역할을 하는 인력을 만들어 내는 것’ 이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장익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교육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파트너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함께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지요.

이상덕 저는 교육은 ‘좋은 인연으로 평생을 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우 >>
김두리 양과 아주대의 첫 만남

2012년 입학식, OT, 배치고사 현장

먼 훗날 오늘을
감사할 아름다운 인연이 되기를

입학(入學), 대학 생활에서 가장 설레고 기대 되는 순간이다. 4년 동안 나의 열정을 모두 쏟아내고 이리저리 부대끼고 관계 맺어야 할 학교와 선배, 동기, 교수님들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첫 순간이기 때문이다. 아주대학교와 처음으로 만나는 김두리 학생(정치외교학과 12학번)의 입학식에 살짝 동참해 보았다. 나도 모르게 신선한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부풀었던 하루. 지난 2월 23일 열린 아주대학교 입학식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글 이미정(편집실)

나도 이제 아주대학교 식구!

한결 포근해진 바람을 따라 삼삼오오 아주대학교 체육관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 사람들 목소리에 리듬감이 넘치고 발걸음은 경쾌하다. 멀리서 보아도 한번에 신입생을 알아챌 수 있을 만큼 파릇파릇 통통 튀는 학생들. 깔끔하게 차려입은 옷매무새에서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묻어난다.

“중고등학교 때도 입학식을 했지만 대학교 입학식은 또 느낌이 다른데요? 모든 게 새로워요.” 김두리 학생은 순간과 순간이 이어지는 입학 첫날의 모든 시간이 새롭기만 하다. 체육관을 가득 채운 동기들과 함께 둘러보는 아주대학교 교가, 어색하고 담담했던 입학선서, 진실하고도 내실 만점의 특강……. 입학식장은 출발선에 선 사람들의 설렘과 기대감으로 충만하다. 특강을 듣는 두리 양의 얼굴에도 진지함이 가득하다. 김두리 학생은 귀를 쫓긋 세워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살렸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이국종 교수의 특강과 박영동교무처장님의 교육방향 특강을 주의 깊게 들었다.

입학식의 마지막 무대는 아주대 교내 응원단인 센토와 흑인음악 동아리 소울(Soul), 힙합 동아리 비트(Beat)가 장식했다. 신나는 음악과 춤이 이어지자 그제야 두리 학생 얼굴에 편안한 웃음꽃이 핀다.

“이제 정말 아주대학교 학생이 된 것 같아서 든든하고 기분이 좋아요.”

두근두근 신입생 배치고사

오후에는 신입생 배치고사가 신입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배치고사 보는 대학교는 아주대학교뿐일 거예요.(웃음)” 두리 양의 말대로 ‘신입생 배치고사’는 대학교 입학식의 전형적인 풍경은 아니다. 아주대학교 신입생들은 입학식 날 기초영어 시험을 치른다. 이과 학생들은 입학식 다음날 수학·물리·생물·화학 등 전공기초과목 시험도 함께 본다. 배치고사는 단순히 학생 테스트를 위한 시험이 아니다. 배치고사 결과에 따라,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아주대학교만의 신입생 특별관리 시스템의 첫 프로세스인 셈이다. 다른 학교의 경우, 입학식 뒤에 으레 술자리가 벌어지곤 하니 학생들의 출발부터 차별화된 아주대학교의 모습은 대한민국 대학의 귀감이 될법하다.

두리 양은 배치고사를 치를 다산관으로 걸음을 옮겼다. 입학식부터 시험이러니 투정어린 불만이 흘러나올 법도 하지만 시험이 치러질 강의실은 고요하다. 1시 30분이 되자 신입생들은 각자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배치고사를 친다고 해서 놀랐어요. 배치고사 결과가 나쁘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듣는 영어 수업 외에 기초반 수업을 더 들어야 한다고 해요. 실력이 모자라면 기초반 수업을 들어서라도 실력을 쌓아야죠. 제게는 기초반 수업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두리 학생만 배치고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니었다. 한 학생은 “학교가 처음부터 제 학업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선배의 조언.

“사람이 젊어서는 꿈을 먹고 살고 늙어서는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어.

신입생에게는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키우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양한 활동에 참가하면서 추억도 차곡차곡 쌓아.”



성취도를 체크하고 관리해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아주대학교에 들어와서 다행”이라면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후 4시가 넘어섰다. 하지만 오늘의 입학식 일정은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았다. 배치고사 후에도 중요한 행사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다산관 강당으로 이동한 신입생들은 신입생 프로그램과 학사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전공진입제’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는 더욱 집중했다. 메모하는 두리 양의 손이 능숙하다. 전공진입제는 대학 필수, 기초 과학 과목을 1학년 때 이수하지 못하면 전공과목의 수강을 제한하는 학사관리제도다. 주로 글쓰기나 영어처럼 전공공부에 꼭 필요한 기초 지식을 이수해야 한다.

아름다운 인연을 기대하며

학사제도 안내가 끝나자 선배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치외교학과 신입생들은 여기로 모이십시오!” 김두리 학생도 선배 목소리에 시선을 돌렸다. 신입생들이 선배들과 처음 대면하는 자리였다. 선배들은 추천과목과 수강신청 요령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신입생들은 역사적인 첫 수강신청을 마쳤다. 이제 나의

수업, 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 어엿한 아주대학교 식구가 된 것이다. 입학사정관제인 커리어로드맵 전형으로 아주대학교와 인연을 맺은 두리 학생의 포부는 남달랐다.

“스펙을 쌓기 위해 요즘 대학생들은 치열하게 생활하잖아요? 물론 저도 그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제 목표는 조금 다릅니다. 대학은 스펙을 올리기 위한 학원이 아니라 저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는 곳이라 생각해요.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스펙이 아닌 무슨 일든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대학을 나서고 싶습니다. 아주대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설레요. 학보사에서 취재도 하고 싶고, 수업 외 다양한 강좌나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싶고, 동아리 활동도 신나게 하고 싶고요. 아주대학교는 학생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든든하고 좋은 파트너를 만난 느낌이랄까요?(웃음)”

아주대학교와 2012년 신입생 김두리 양, 이 둘의 만남과 인연이 먼 훗날 ‘오늘’을 감사하는 아름다운 인연이 되기를 바랄뿐이다.



김두리 학생의 입학식 하루

- AM 10:00 체육관에서 열린 입학식. 교가도 불러본다.
- PM 01:20 배치고사를 보기 전 이름에 따라 배정된 강의실과 학번을 확인 중
- PM 02:00 시험지를 받고 배치고사가 시작되었다. 잘 봐야 할 텐데
- PM 04:20 지금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 집중해서 들어야지.
- PM 05:20 내가 들으려고 했던 수업이 뭐였더라? 수강신청은 정말 어렵네.



스트라타 트리맵이 이어준 특별한 인연

우연 偶然 너머의 필연 必然

'복잡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한눈에 보자' 는 아이디어는 학계와 언론, 기업으로부터 무궁한 가능성을 확인받았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이 생소한 이름의 프로젝트 '스트라타 트리맵' 은 우연 같은 만남에서 발아되었다. 하지만 세상에 우연은 없다. '스트라타 트리맵' 탄생의 주역 미디어학부 권오현-최정홍 학생과 이경원 교수를 만나 그들의 인연을 회상해 본다. 글 박진희(편집실)

2010년 9월, 첫 만남

이경원 교수 이번 학기 과제는 '정보를 시각화' 하는 것이다. 어떤 아이디어든 좋으니 자유롭게 과제를 수행하도록.

권오현 형, 우리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멤버십' 에서도 매일같이 보는 사이니까 함께 과제를 해보는 게 어때?

최정홍 그래,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권오현 응, 말만 해! 어떤 아이디어든 프로그래밍 할 자 신 있어. 나만 믿으라구!

최정홍 기존에 일정관리 프로그램들 있잖아, 어떤 일 정이건 똑같은 크기의 빈칸에 써넣는 방식이 너무 비효 율적이지 않아? 그래서 말인데,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칸의 크기를 달리 할 수 있는 '트리맵' 방식을 일정관 리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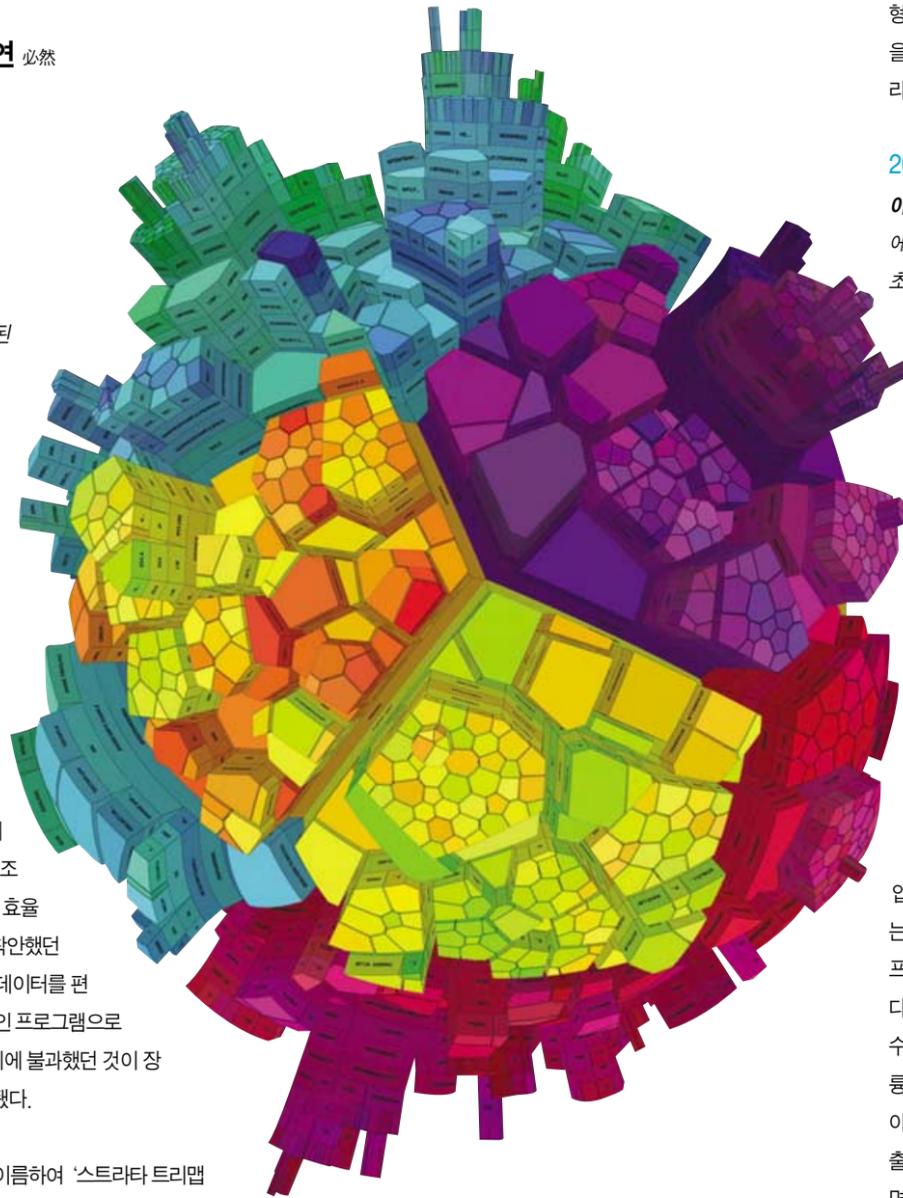
권오현 좋은 생각이야. 트리맵을 구(球)의 표면 위에 그 린다고 가정하고 그대로 수직으로 올려보자. 그러면 입 체적인 구조가 되면서 한눈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 않 을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원 교수 오호, 트리맵이라면 나도 기록해 둔 게 있 지. 작년 미국에서 연구할 때 기존 트리맵의 문제에 대 한 해결책을 그림으로 그려봤지. 두 사람이 트리맵이라 는 소재를 택했다니 무척 반가운데?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 더 연구를 해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봐.

그렇게 세 사람이 의기투 합했다. 반짝이는 아이 디어와 명확한 논리로 뚝뚝 뭉친 최정홍(미디 어04), 디자인은 물론 프로그래밍도 자유자 재로 할 수 있는 기술력 과 자신감으로 무장한 권 오현(미디어08), 그리고 이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디자인공학 분야 전문가 이 경원교수, 세 사람의 완벽한 조 합이었다. 당초 일정관리를 효율 적으로 하기 위한 것에서 착안했던 단출한 아이디어는 방대한 데이터를 편 리하게 다룰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했고, 한 학기 수업 과제에 불과했던 것이 장 장 1년이 넘는 프로젝트가 됐다.

이들이 개발한 프로젝트는 이름하여 '스트라타 트리맵 (Strata Treemap)'. 말 그대로 지층, 계층을 뜻하는 단어 '스트라타' 에 계층 구조를 평면적인 지도 형태로 전환 해서 보여주는 방식인 '트리맵' 을 결합한 명칭이다. 계 층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시각화하는 기술로, 기존 트 리맵의 장점은 살리되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다는 단점



복잡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스트라타 트리맵' 의 모습. 미국컴퓨터학회(ACM)가 주최하는 '시그래프(SIGGRAPH) 2011' 학생연구 부문에 유일하게 초청됐다.

을 극복한 것이다. 수많은 폴더로 나뉜 파일이 하나의 입체적인 구(球) 위에 표현되기 때문에 모든 파일의 용 량과 위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이 프로그램 의 가장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 '스트라타 트리맵' 을 MP3플레이어에 적용하면 자주 듣는 음악 폴더는 큰 도 형이나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손쉽게 원하는 파일을 찾 을 수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온라인 게임 등 '스트 라타 트리맵' 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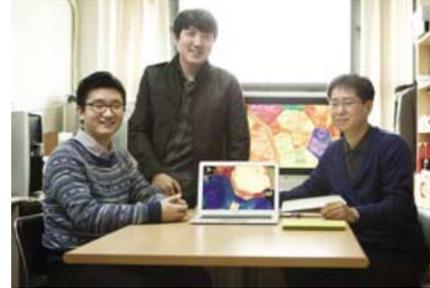
2011년 8월, 가자 밴쿠버로!

이경원 교수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에 캐나다 밴쿠버 에서 열리는 '시그래프(SIGGRAPH) 2011' 에 우리가 초청됐다. 시그래프는 미국컴퓨터학회(ACM)가 주최하 는 세계 최대의 컴퓨터 그래픽스 국제 콘퍼런스라는 건 알지? 학생연구 부문에서는 '스트라타 트리맵' 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출품작이 됐다.

최정홍 와~ 영광인데요.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어요.

권오현 우와! 그럼 우리 밴쿠버 가는 거예요? 해외 연구자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요!

바쁘게 달려온 지난 1년의 노력은 세계적인 콘 퍼런스에 초청되는 성과를 낳았다. 더욱이 학부 생으로는 유일하게 25개 출품작이 겨루는 준결 승까지 진출했다. 해외 유수의 연구자들이 '스트 라타 트리맵' 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삼성, 애플 등 기 업 관계자들이 이들을 찾아와 실제 상용화시킬 수 있 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줬다. 1년 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둘은 의견충돌 한번 겪지 않았 다. 서로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경원 교 수는 그런 두 제자가 기특했고, 두 제자는 물심양면 훌륭한 멘토가 되어주는 교수님께 감사했다. 한국어로 돌 아오자마자 이들이 한 일은 '스트라타 트리맵' 의 특허 출원. 이들의 소식이 국내의 한 일간지를 통해 보도되 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권오현 최정홍 학 생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할 수 없다. 현재 이들은 3월에 있을 논문 발표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며, 보다 탄탄하고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열심 히 연구에 몰입하고 있다.



지도교수 이경원 교수와 함께

2012년 2월, 새로운 시작

이경원 교수 앞으로 '스트라타 트리맵' 이 어떻게 활용 되면 좋을까?

권오현 SF영화처럼 홀로그램 인터페이스가 상용화되 면 '스트라타 트리맵' 을 홀로그램으로 띄워놓고 실제 로 만지듯이 구동해보는 게 꿈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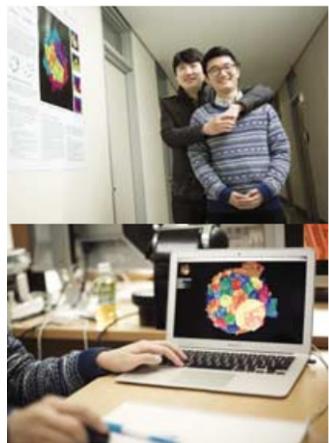
최정홍 미래에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 리 프로젝트도 처음엔 그냥 순식간에 나온 아이디어였 는데 1년 동안 일궈낸 성과를 보면 놀라워요.

이경원 교수 그래, 이제 두 사람은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역량도 갖췄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좋은 동료 연구자로 성장했으면 하는 게 나의 가장 큰 바람이야. 그때 되면 내가 제자 덕을 좀 봐야지(웃음)

세 사람의 만남은 우연히 시작된 듯하지만, 큰 그림으 로 보면 필연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두 사람이 인연을 튼 것, 둘이 함께 과제를 하기로 한 것, 그 과제의 가치 를 알아봐 준 교수님을 만난 것. 좀 더 거슬러 올라가자 면 '아주대학교' 라는 울타리 안에서 세 사람이 만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평범한 만남을 특별한 인연으로 만든 것은 프로 젝트를 향한 이들의 열정과 노력이었다. 그 노력의 결 과가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 컴퓨터 바탕화면과 MP3플 레이어, 스마트폰에서도 '스트라타 트리맵' 을 만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 주말에도 열려 있 는 연구실과 늦은 밤에도 불이 환한 실습실에서 그 날 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

최정홍, 권오현 학생(좌로부터)과 이들이 개발한 '스트라타 트리맵' 의 모습





학문과 연구, — 유전체 불안정성 제어 연구센터 인생의 진정성에 대하여



파티는 끝난 지 오래다. 7년 동안 나라에서 8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선도연구센터(SRC, Scientific Research Center)'에 선정된 후,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연구센터 개소를 축하한 지 벌써 반 년이 지났다. 더 크고 의미 있는 잔치를 기대하며 오늘도 연구실의 불빛을 환히 밝히고 있는 '유전체 불안정성 제어 연구센터(이하 GIRC Genomic Instability Research Center)'. 대한민국의 생명과학을 선도할 아주대 GIRC를 이끌고 있는 조혜성 센터장과 실력은 물론 열정으로 무장한 미녀 연구자 4인방 최경숙, 이종수, 김유선, 권명희 교수를 만났다. 글 이병유(편집실)

선도연구센터
(SRC, Scientific Research Center)란

특정분야별 우수연구그룹을 집중 지원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으로 '선도 과학자 그룹'을 육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최종 목표지향점에 따라 SRC(Science Research Center)와 ERC(Engineering Research Center)로 구성되며, 2011년에는 총 81개의 센터가 SRC와 ERC에 도전해 9곳이 지정됐다. 의학학 분야는 아주대학교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세미나 중인 유전체 불안정성 제어 연구센터(GIRC) 연구진과 최경숙 교수



유전체의 불안정성과 그 제어 메커니즘

유전체! 그 신비한 정체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벅하다. '유전체 불안정성'이란 개념은 조혜성 교수와 4명의 연구자에게 접근하는 키임에 분명하다. 문외한은 그저 '유전체의 불안정성을 제어하는 연구인가?' 라는 소박한 개념도를 그릴 뿐이다. '유전체의 불안정'은 뭐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은 무엇일까? 전문가이자 현장의 연구자만이 구사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어휘와 속도로 조혜성 센터장은 연구의 핵심을 알기 쉽게 설명해 낸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케이스가 다운증후군(Down Syndrome)입니다. 다운증후군의 원인이 '21번 염색체의 개수가 3개'라는 것은 중학교 때 배워 알고 있죠. 그렇다면 왜 그 수가 3개로 증가했는지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센터의 주된 연구는 암과 더 관계가 깊습니다. 암조직의 약 85%에서 염색체 기형, 즉 염색체의 수나 모양의 변화가 관찰됩니다. 정상인은 23쌍의 46개의 염색체를 지니는데 암세포의 염색체 수는 47개에서 100개 이상이 관찰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유전체의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종수 교수가 연구의 핵심을 정리하여 센터의 연구목적 및 비전과 연결한다.

"여러 유전적 질환은 '유전체의 안정성을 제어 하는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데, 그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유전 질환과 퇴행성 질환, 암에 대한 대처 전략을 세우는 것이지요. 만약 이 연구를 통해 그 메커니즘에 대한 획기적인 발견이 이뤄지거나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유전체 불안정 질환과 불치병 정복에 성큼 다가서는 역사적인 연구가 될 것입니다. 유전체 불안정성 연구는 분명 매력적인 연구임에 틀림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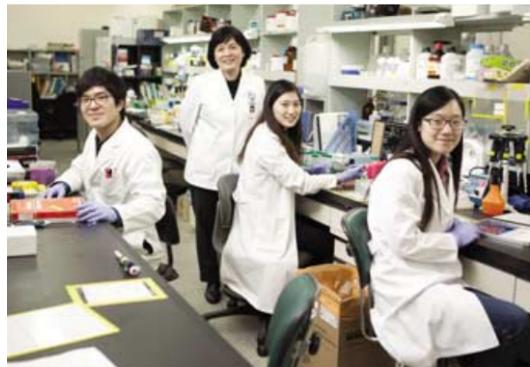
하지만 연구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이들마저 막막해 하는 것은 그 장밋빛 비전이 연구자의 삶에 100% 실현될 것이라는 보장이 확실치 않다는 점이다. 또한 수련을 넘은 구도(求道)와 같은 그 과정 역시 결코 녹록치 않다. 대학에서 이뤄지는 모든 연구가 그렇지만, 특히 기초과학 연구는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걸어야 하는 투자와 같은 것이다. 혹은 레이스(race)를 아주 길게 봐야 하는 장거리 경주에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보면 '과학자'라는 직업은 꽤나 배짱이 두둑해야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이다. 하지만 그 경주에는 관람자는 경험할 수 없는, 참여자만이 느낄 수 있는 크고 작은 재미가 기다리고 있다.

"여러 유전적 질환은 '유전체의 안정성을 제어 하는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어 발생합니다. 저희센터가 그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유전 질환과 퇴행성 질환, 암에 대한 대처 전략을 세우는 것이지요."



유전체 불안정성 제어 연구센터(GIRC)의 막내 연구생들과 센터장 조혜성 교수. 그녀는 기초과학 연구자들의 덕목으로 열정과 끈기, 호기심을 손꼽는다.



열정, 끈기, 호기심 그리고 넘어야 할 산

멀고도 험한 모험의 길, 생명의 비밀을 찾으러 가는 그 길에 연구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최경숙 교수는 즉답한다. “끊임없는 호기심이죠.” 이종수, 김유선, 권명희 교수 역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연구자로서 그들의 삶에서 응축해낸 가치를 쏟아낸다. “인내 아닐까요? 아! 그리고 정직해야하고요.” 센터의 리더 조혜성 교수가 정리한다.

“열정, 끈기, 호기심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 덕목의 경중과 우열을 따질 수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과학과 진리 탐구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연구 과정에는 무엇보다 끈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호기심이 있어야 연구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요.”

대화는 자연스레 연구에 가장 힘들고 장애가 되는 부분으로 흘러간다. 순발력 강한 최경숙 교수가 역시 말문을 연다. “우수한 연구 인력의 공급이죠. 단순히 성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문과 자기의 ‘업(業)’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는 학생들을 말합니다.” 연구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우수 인력 공급 뿐만은 아닐 터, 조혜성 센터장이 비통을 이어받는다.

“그 밖에도 연구비와 논문 발간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단독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요. 연구비가 없으면 당연히 연구에 집중할 수 없고, 연구에 소홀해지면 우수한 논문이 나오기 힘들습니다. 연구자의 연구 성과는 논문으로 증명되는데 연구 성과가 없으면 당연히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그 연구센터에 들어오지 않겠지요.”

그래서 아주대학교의 선도연구센터(SRC) 지정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SRC의 의미가 단순히 연구비 마련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SRC 지정의 본질은 국제적 수준의 우수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아주대 GIRC의 연구역량과 3년의 시도 끝에 SRC 지정을 이뤄낸 이들의 연구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세 번의 도전 끝에 SRC에 지정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센터의 주축이 되었던 교수님들은 일 년에 한두 달은 거의 SRC 과제에만 매달리며 일하셨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여기 계신 최경숙, 이종수 교수는 고3 엄마셨죠. 두 배의 노력을 했음에도 SRC 지정이 안되어 센터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또 SRC 지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지만 끝내 연구진에 합류하지 못한 교수님들께 정말 너무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조혜성 센터장은 리더로서 SRC 심사기준을 위해 가슴 아픈 결단을 해야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유전체 불안정성 제어 연구센터(GIRC)를 이끌고 있는 아주대학교의 5인방. 좌로부터 조혜성 센터장, 최경숙, 이종수, 김유선, 권명희 교수

“센터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일은 센터 연구진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SRC 평가에 최근 3년간의 연구업적만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였던 교수님들이라도 연구논문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제외할 수밖에 없었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대의를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연구자들도 조혜성 교수의 장점을 외유내강의 철저한 자기관리 리더십이라 입을 모은다. “평소엔 부드럽고 포용력이 있으세요. 하지만 맏고 끓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시죠.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입니다.” 동료 연구자의 평가에 쑥스러운 듯 조혜성 센터장은 내유외강의 리더십을 “두 얼굴”이라 낮춰 말한다. 아주대 GIRC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연구에 몰두하는 사람은 80여 명. 적지 않은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캐릭터가 분명한 리더십이 반드시 요구될 것이다.

기초과학연구 기피, 성공 모델 필요해

이공계 기피현상, 특히 젊은이들이 기초과학 연구에 도전하지 않는 세태에 대해 일찌감치 과학의 길에 입문하여 그 길을 걷고, 또한 그 길을 만들고 있는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사회에 나와서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려는 학생들의 생각을 뭐라 나무랄 수는 없지만, 남들이 가는 길, 이미 검증된 길만 가기를 원하는 습성을 보면, 누군가로부터 사육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IMF와 경제위기를 겪은 부모들의 방어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 교수의 진단에 이종수 교수는 구조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보다 크게 바라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업이 R&D(연구와 개발)의 기반과 분야를 넓히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기초과학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연구자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동기부여를 김유선 교수와 권명희 교수가 지적한다. “성공한 과학자의 모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초과학이 단순히 취업이 안 돼서 기피하는 분야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과학 분야는 ‘학문의 기쁨’, 특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자기 투자를 통해 본인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실험과 연구가 얼마나 즐거운 경험인지 느끼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센터장의 선 굵은 진단에 최 교수가 부연한다. “실제로 학부생들이 연구실 인턴을 경험하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생들이 3, 4학년이 되면 진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데, 선배들이 연구자로서 먼저 일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는 거죠. 열심히 연구하는 선배들이 모델이 되고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기초과학 현장의 가감 없는 진단이자 자신의 업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조언들이다. 인생을 보다 길게 보고 그 안에서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찾으라는 메시지다. 학문의 의미와 인생의 진성성에 대한 만만치 않은 문제제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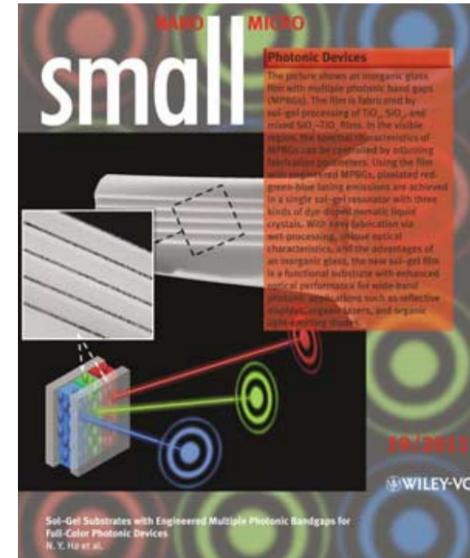
인터뷰는 연구센터 앞 역대 노벨상 수상자 사진 앞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 앞에서의 촬영이라……. GIRC 연구자에게겐 매력적인 복선이자 지난 3년에 걸쳐 완성한 성공 드라마의 엔딩으로 훌륭한 장소다. 그러나 그 드라마의 끝이 여기일 수 없다. 이들이 만들어갈 더욱 흥미진진한 시즌 2를 기대해 본다.



디스플레이 장치에 원하는 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Red(빨강), Green(초록), Blue(파랑) 세 개의 광자결정이 필요했다. 하나영 교수(에너지시스템학부 물리학 전공)가 이를 단 하나로 줄이는 것에 성공했다. 물론 세계 최초다. 지난해 11월 귀여운 아들을 출산하고 2월부터 다시 연구에 매진하기 시작한 하나영 교수에게 그녀의 연구에 대하여 들어 보았다. 글 정우준(홍보실)

세계 최초, 하나의 광자결정으로 — 여러 색 구현

하나영 교수
(에너지시스템학부 물리학 전공)



나노과학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Small>에 권두표지논문으로 하나영 교수의 '다중 광밴드갭 솔젤 박막' 이 소개됐다.

3 in 1

지난해 하 교수는 여러 색의 빛을 제어 가능한 광자결정인 '다중 광밴드갭 솔젤 박막'을 개발했다. 세계 최초 개발이라 이름 또한 하 교수가 명명했다. 용어가 매우 어렵다는 말에 하 교수는 단어에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이름을 붙이다 보니 길어졌다고 말한다.

“다중 광밴드갭 솔젤 박막”이란 여러 겹의 광밴드갭이 존재할 수 있도록 ‘솔젤 방법’으로 만들어진 박막, 즉 광자결정을 말합니다. 광자결정은 빛의 반도체라 불리는 빛을 제어하는 광소자 또는 기기들의 핵심부품으로서 특정 색깔의 빛만 내게 하는 광밴드갭이라는 광학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젤 방법이란 산화티타늄(TiO2)과 실리카(SiO2)를 주재료로 활용해 낮은 온도에서 세라믹이나 유리를 제조하는 방식으로 복잡하고 섬세한 구조물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 교수가 이번에 개발한 광자결정의 최대 장점은 무엇일까? 삼푸와 린스가 합쳐진 제품이 각광을 받았던 것처럼 “다중 광밴드갭 솔젤 박막”도 기존의 광자결정들보다 간편해졌다”고 하 교수는 설명한다. 다중 광밴드갭 솔젤 박막의 장점은 바로 ‘3 in 1’으로 설명할 수 있다.

“흔히 우리가 보는 디스플레이는 빛의 삼원색인 Red(빨강), Green(초록), Blue(파랑)의 조합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죠. 기존에는 이 빛의 삼원색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색을 나타내는 광자결정이 3개가 필요했지만 다중 광밴드갭 솔젤 박막은 하나의 광자결정으로 빨강, 초록, 파랑의 세 가지 색을 모두 제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잡 다단한 이론을 현실로

광밴드갭 솔젤 박막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 공정의 단순화와 안정성이다. 다중 광밴드갭 박막에 대한 이론적인 아이디어는 일부 학계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실질적인 구현이 불가능했다. 하 교수는 50여 개의 단계를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공정을 16단계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간편함과 공정의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세 개가 필요하던 광자결정이 하나로 줄어든다면 제조해야 하는 광자결정의 개수와 그에 따른 제조비용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며 공간적으로도 3배나 효율성이 있다. 하지만 당장 이 기술이 산업화 될 수 있느냐, 산업적 가치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는 고무된 질문에 대해서 하 교수는 조금 회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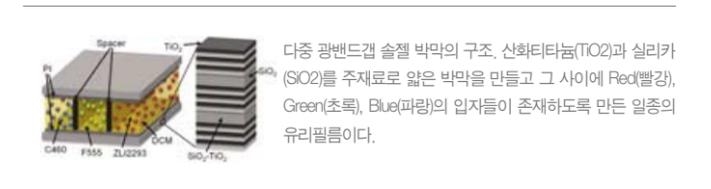
“다중 광밴드갭 솔젤 박막이 독창적이고, 경제적이며 공정에 있어서도 안정성이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 연구는 어디까지나 연구단계에서의 성공이었고요, 당장 산업화를 위해서는 수 만개의 광자결정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설비와 안정성에 대한 투자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전망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전망으로 새로 개발된 광자결정의 활용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중 광밴드갭 솔젤 박막 개발의 성과는 일반 대중보다 학계에서 더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하 교수의 연구결과가 나노과학분야의 세계적 권위지 중 하나인 <Small(이하스물)>지에 지난해 10월 권두표지논문(Frontispiece)으로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스몰>지는 저널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 영향력지수(Impact Factor)에서 2010년 7.336을 기록한 SCI 등재 학술지이다. 특히, 영향력지수 측면에서 나노과학분야의 학술지 중 최근 3년간 5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학술지이다.

물리학, 전망 밝다

근래 들어 물리학을 비롯한 기초과학 분야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지 않다. 하 교수는 ‘기초과학을 전공하면 취업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에 분명히 반대한다.

“물리학은 결코 취업이 안 되거나 떠분한 학문이 아닙니다. 물리학은 기초학문이지만 반도체, 전자, 디스플레이와 같이 요즘 각광받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물리학이 빠지면 연구와 개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산업계에서도 물리학과 출신에 대한 수요가 많고, 물리학은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물리학 전공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미래나 진로에 대해 미리 겁먹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아주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들은 고체물리와 광학 분야에 특화되어 있어 우리학교 물리학과는 학문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매우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중 광밴드갭 솔젤 박막의 구조. 산화티타늄(TiO2)과 실리카(SiO2)를 주재료로 얇은 박막을 만들고 그 사이에 Red(빨강), Green(초록), Blue(파랑)의 입자들이 존재하도록 만든 일종의 유리필름이다.



“OO야, 목표의식을 가져라.”, “그 단체는 목표의식을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어.” 우리는 살면서 ‘목표의식’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목표의식’은 우리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목표의식이 왜 중요한지 심리학에 기초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글을 읽는 지금은 당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에 대한 ‘관점’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망갈 것인가, 김경일 교수(심리학과) 도전할 것인가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 불안

심리학자로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야?”이다. 언제나 정답은 ‘불안’이다. 고통이나 공포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불안이다. 불안은 ‘그 시점과 정도는 모르지만, 아직 발생하지는 않은 좋지 않은 무언가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통칭하는 말이다. 인간은 불안을 피할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려 하고, 또한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조금도 하려 하지 않는다.



그럼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조금도 하지 않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불안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모호함’, 즉 ‘불확실성’에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모호한 것들은 불확실함을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예측불허’를 의미한다.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한다. 그것은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즉 ‘불확실성’ 때문이다. 자신이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니 전전긍긍하게 되고 급기야 그 불안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자살을 하는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자신의 사형집행일을 통보 받은, 즉 자신이 언제 죽게 되는지 알고 있는 사형수들은 불안하기보다 슬퍼한다는 것이다.

‘불안’이나 ‘슬픔’ 모두 좋지 못한 감정 상태이지만, 이 둘은 분명히 다르다. 불안한 사람이 그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 향하고 싶은 상태는 바로 ‘안도’이다. 그런데 슬픈 사람은 그 슬픔을 벗어나 도착하고 싶은 상태가 ‘기쁨’이나 ‘행복’이다. 공부를 못하면 부모님께 벌을 받는 철수와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께 칭찬을 받는 영희. 두 사람 모두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유는 다르다. 두 사람 모두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왔다. 영희는 기쁠 것이다. 하지만 철수는 기쁘기 보다는 ‘휴~ 살았다’라는 안도감을 더 강하게 느낄 것이다. 반대로 두 사람 모두 성적이 나쁘게 나왔다. 영희는 슬플 것이고 철수는 불안할 것이다. 즉 우리는 ‘어떤 이유로 사는가’에 따라 ‘행복·슬픔’ 위주의 세상과 ‘불안·안도’ 위주의 세상 중 어느 하나를 더욱 강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 ‘불안’이 강한 경우 사람들은 그 불안을 키울 수 있는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끔찍이도 싫어하게 된다. 그런데 좋은 것들을 획득하거나 달성하려면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모험과 투자, 기다림이 꼭 필요하다. 즉 ‘모호함’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이다.

도전하게 만드는 접근동기

이제 결론은 분명하다. 좋지 않은 일을 피하려는 마음이나 동기로는 결코 큰일을 해 내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는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결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에 있는 우리는 이 점을 정말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업, 취업, 연구,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학의 많은 구성원들은 ‘도태되지 않기 위해’ 혹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안을 자극하는 문구들은 어디까지나 ‘모호함을 벗어나기 위한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일에는 ‘행복 혹은 기쁨’을 지향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더 크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느 기업도 학점과 토익점수로 사람을 뽑지 않는다. 다만 뽑지 않을 사람들을 그것으로 가려낼 뿐이다. 실제로 뽑히는, 그리고 ‘쓰이는’ 사람들은 학점이나 영어점수와 같이 쉬 드러나는 ‘양’적인 측면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봐야 하는 ‘질’적인 측면을 함께 지닌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질’적인 측면은 겉으로 보이지 않고, 축적하기에 모호하고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잘 투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심리상태는 ‘불안’과 그것을 회피하려는 상호작용에 강하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 학생, 그리고 대학은 각각 무언가 이루고 싶은 미래가 있어야 하며 그 미래를 향해 갈 때만 바로 그 모호한 ‘질’적인 측면을 쌓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심리학자들이 보기에는 바로 그것이 ‘목표의식’이라는 것이다. 이 목표는 무언가 안 좋은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닌 무언가 좋은 것이어야 하며, 그 최종 목표의 이미지를 늘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 목표를 힘이 들 때마다 중간 중간에 마음속에서 꺼내어 보면서 다시금 힘을 내고 모호한 세상을 향해 도전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은 좋은 목표를 많이 그려주고 보여줘야 하며 대학생들은 이를 보고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가슴 깊이 담아두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꿈’이다.

“꿈이 없는 자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꿈이 없는 사람은 목표가 주는 에너지를 상실하고 좋지 않은 일을 피하기 위해 방향 없이 강박적으로 열심히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불안’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경험하는 것이지만, 불안할 때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그 사람 혹은 그 국가의 미래를 확연히 바꾼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필자가 본 지면을 통해 역설한 ‘목표를 향한 에너지’를 심리학에서는 ‘접근동기’라고 한다.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동인을 ‘회피동기’라고 한다. 이제 내 안에 있는 회피동기를 조금 줄이고 접근동기를 좀 더 키워보자.

“연극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에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대학에 다니면서 유명 연극영화과 및 곳에 합격했으나 결국 가지 않았다. 그러나 배우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정도의 오기와 강단은 있어야 ‘열정passion’ 이라는 위대한 이름이 허락되리라. 아주대 연극동아리 ‘아몽극회’ 활동으로 인생의 목표를 연극배우로 세우고 힘차게 달려가는 홍성인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배인나(홍보실)

무엇을 하면 _____ ‘아몽극회’ 홍성인 학생(기계공학부 06) 행복할까?

“호기심에 끌린 연극, 또 다른 나를 발견하다”

홍성인 학생은 연극을 본 적이 없었다. ‘아몽극회’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연극에 대해 그다지 흥미가 없었던 그가 아주대 기계공학부에 입학했다. 1년간 재수를 하며 공부에 대한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는 입학과 동시에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뭔가를 원했다. 그러던 중 연극 동아리인 ‘아몽극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 때문이었다. 그런데 연극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그 세계에 빠져들었다. 그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없이, 제 스스로 좋아서 공부했던 건 처음”이었다고 말한다. 틈나는 대로 도서관으로 달려가 연기에 관한 책을 찾아보며 연습했다. ‘또 다른 나’를 발견한 기쁨이란 그런 것이었다.



홍성인 학생은 요즘 대학생 아마추어 연극단에서 준비 중인 <줄리에게 박수를>의 연출을 맡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연기를 배우고 싶어,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연기 지도도 받았다. 서울의 유명한 연극 영화과 이곳저곳에 원서를 접수해 몇 군데에 최종 합격까지 했다. 하지만 전문 배우가 되기 위한 길은 순탄치 않았다. 부모님은 그가 졸업 후 안정된 직장을 가지길 원하셨다. 아들이 잘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급기야 쓰러지시고 말았고, 가족들 모두 그를 만류했다. 어머니를 위로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물론 부모님을 이해합니다. 예술가는 힘들고 배고픈 직업이라는 걸 잘 아니까요.” 그는 결국 연극영화과 진학을 포기했다. 그러나 배우가 되는 꿈은 포기하지 않았다.



“살아 있다는 느낌을 주는 연극 무대”

소위 스펙을 잘 쌓아 좋은 직장에 취업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꿈을 좇아갈 것인가? 홍성인 학생은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에 대한 답을 먼저 찾으라고 말한다. 지금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그도 한두 해 전까지는 이 같은 고민을 하루에 수십 번도 더 했다. 입대 전 동아리에서 마지막 연극을 마친 후 문득 ‘과연 연기를 그만두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10년 후 대학로를 거닐다 연극 포스터를 보고도 아무런 미련과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럴 자신이 없었다.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내가 행복한 일을 하자’는 결심이 지금의 그를 만든 것이다. 홍성인 학생은 3년 전 영화 <왕의 남자>의 원작인 연극 <이(爾)>의 대본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연



극에 나오는 연산군의 독백 대사로 연극영화과 실기에 합격하기도 했다. ‘연젠기는 꼭 내가 이 연극을 무대에 올리겠다’고 마음먹었던 그는 작년 아몽극회에서 그 꿈을 이루었다. 무대 배치, 배경, 조명, 대사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 직접 연출한 무대를 올렸다. 어느 때보다 ‘살아 있다’는 느낌을 생생히 받은 순간이었다.

홍성인 학생은 자신의 롤모델로 배우 ‘신하균’을 꼽는다. 그가 출연한 영화 ‘박수칠 때 떠나라’의 주인공 김영훈 역할을 연습해 연극 무대에 오른 적도 있다.

“백 마디 대사보다 하나의 표정으로도 감동을 주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동아리 활동, 학업 방해 아닌 시너지”

1학년 때는 그야말로 ‘연극에 미쳐’ 학업은 뒷전이였다. 그러나 대학생살 1년을 되돌아보니 전공 공부에도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목표가 중요한 만큼, 부모님의 기대 또한 저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험 한 달 전부터는 도서관에서 기계공학 공부에 전념한다. 덕분에 2학년 때부터 평점 3.5 이상을 유지했다. 그는 “동아리 활동이 학업에 지장을 주지만은 않는다.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풀고, 선후배와 친구까지 얻게 되니 일석이조”라고 말한다. 그래서 후배들에게도 관심 있는 동아리에 꼭 가입해 보라고 조언한다.

“아주대는 나의 무대”

홍성인 학생은 자신의 롤모델로 배우 ‘신하균’을 꼽는다. 그가 출연한 영화 <박수칠 때 떠나라>의 주인공 김영훈 역할을 연습해 연극 무대에 오른 적도 있다. “백 마디 대사보다 하나의 표정으로도 감동을 주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홍성인 학생. 요즘은 대학생 아마추어 연극단에서 준비 중인 작품 <줄리에게 박수를>의 연출을 맡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3월 말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남은 한 학기에는 학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졸업 후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대학원에 진학하는 게 목표다.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묻자. “그때도 대본을 들고 대사 연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라며 해맑게 웃는다.

홍성인 학생에게 아주대학교는 어떤 존재일까? 그는 “아주대에서 연극과 처음 만났고, 아주대 연극동아리에서 함께 무대에 오르는 선배와 동기, 후배들 그리고 가까이 제 공연을 보러 와 주신 관객들을 만났다”며 “아주대는 제 인생의 또 다른 무대”라고 말한다. 취업만을 위해 달려가지 않았던 그의 대학생활. 순도 100%의 열정으로 가득 찬 예비 연극인인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지난해 2월 12일, 두 청년은 먼 바다와 대륙을 건너 같은 날 한국에 도착했다.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그리고 아주대 국제대학원이 그 길을 활짝 열어주었다. 타 대학과 차별화된 아주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특징은 국제 교류의 범위를 미주와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의 개발도상국까지 균형 있게 편성한 것. 그 중 가나와 인도네시아는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나라다. 그러나 '가나초콜릿과 아프리카 축구 강국', '이슬람교와 배드민턴의 나라' 라는 피상적인 이미지 이면에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높은 경제 성장률과 선진화를 준비하는 그들의 역동적인 꿈이 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갈 두 나라 미래의 주역, 나나와 아지를 만났다. 글 이혜인(편집실)

내일의 글로벌 리더

나나와 아지의 '대담한 도전'

한국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나나 학부 졸업 후 가나 외무부의 법률국에서 일했다. 가나는 민주화를 이룩한 아프리카 최초의 독립국이다. 정세가 안정되면서 경제가 급성장했고, 한국 정부와도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국가 중 하나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부지런하다. 한국을 모델로 선진 국가의 발전상을 보고 배우기 위해 왔다. 아주대에서 1년 6개월 만에 석사 학위를 이수할 수 있다는 점도 유학생 입장에서 큰 이점이었다.

아지 한국은 변화무쌍한 나라다. 10년 전 한국을 여행했다. 그동안 한국은 겉모습의 변화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비롯한 타문화에 대하는 태도도 관대해졌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그만큼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인도네시아 현지에 포스코와 한국타이어 공장이 들어섰고, 최근 한류 열풍으로 인해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도 대단하다. 인도네시아 통상부에서 일하면서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주목했다. 아주대에서 국제통상학을 공부하며 한국 사회의 성장 동력을 더 깊게 이해하고 싶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어떻게 극복하나?

나나 첫 학기에 '기초 한국어' 를 수강했다. 읽기 실력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 말하기는 부족하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외국인 옆에 앉기를 꺼려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노선도를 들고 길을 헤맬 때마다, 다가와 최선을 다해 도우려 애쓰는 사람들에게 감동했다. 한국인들은 타인의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배려하고, 어떻게든 해결해주려고 노력한다. 아주대 국제대학원은 유학생을 위한 안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학내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아지 한국어는 인도네시아어와 어순이 반대여서 배우기 어려운 언어다. 하지만 공부할수록 재미있어서 고급 코스도 수강했다. 무엇보다도 한국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카카오톡으로 연락도 주고받으며 일상 생활에서 한국어를 많이 활용한다. 학교 수업 외에도 대외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한국 친구에게 1주일에 2~3회씩 무료로 한국어 강습을 받는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다. 하루에 1과씩 공부하는데 벌써 4번째 교재를 공부하고 있다.



Nana from Ghana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장소로써 나는 아주의 비전을 신뢰합니다."

나나
Ernest Nana Adjel(30세)
가나 수니아니(Sunyani) 출신, Kwame Nkrumah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Kumasi 졸업, 2012년도 1학기 아주대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과 학생대표, KEPCO E&C 인턴십

나나가 사랑하는 한국
관소리(박동진 명창), 대금 연주, 난타, 용인민속촌, 제주도, 에버랜드, 비빔밥 · 삼계탕 · 수원갈비, 빠르고 정확한 교통 시스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



한국과 본국 대학 문화의 다른 점은?

나나 가나의 대학교는 한국에 비해 강의시설이 열악하다. 한 강의실에서 300여 명이 같이 수업을 듣기도 한다. 대신 기독교 행사를 비롯한 학내 축제와 많고, 기숙사 생활도 무척 활기차다. 아주대는 소수 정원의 수업과 소규모 스터디 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는 등 교육 시스템이 우수하다. 특히 유학생들을 배려한 교수님들의 강의 내용이 훌륭하다. 주말마다 한국 친구들과 동호회를 만들어 테니스를 치는데, 가끔 교수님과 함께 게임을 즐기기도 한다.

아지 인도네시아의 대학교에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자선사업 등 다양한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곳에서는 틈나는 대로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아주대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은 정말 열정적이다. 시험 기간에는 책과 칫솔만 가지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생활한다. 매 학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2012년 6월 석사 과정을 마친다. 본국에서 하고 싶은 일은?

나나 한국인들은 시간관념이 철저하고 자신이 맡은 책임을 끝까지 해낸다. 그래서 모든 업무 처리가 효율적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그것이 바로 한국 경제 발전의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년간 아주대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며 나의 생활 태도와 생각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다시 가나의 일터로 돌아가면 이곳에서 배운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싶다. 또한 가나 국민들에게 한국을 홍보하는데도 앞장설 것이다.

아지 한국은 아름답고 다채로운 문화를 가진 나라다. 주말에는 명동이나 가로수길의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난타>와 <점프> 등 공연도 자주 보았다. 대전, 여주, 광주, 전주 등 지방 도시들도 여러 곳 여행했다. 유학생인 나를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해 준 아주대 친구들과 교수님, 특히 국제대학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Aji from Indonesia

"세계 최고를 향한 자신만의 꿈을 찾고, 그 꿈을 믿고,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아지
Ramiaji Kusumawardhana(26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Jakarta) 출신, Bogor Agricultural University 졸업, 코이카 8기 대표, 아주대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재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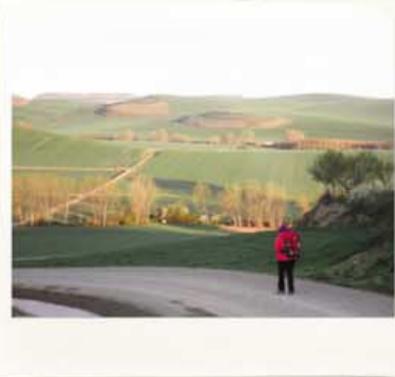
아지가 사랑하는 한국
K-Pop(2NE1, 카라, 빅뱅, 소녀시대), 프로야구(SK와이브스), 명동, 남산한옥마을, 전주제영화제, 낙지볶음밥 · 빈대떡 · 냉면, 친절함 서비스,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



스물둘. 나이에 비해 차분한 음성, 어딘가 모르게 단단한 힘이 느껴지는 정현은 가리비 겹데기 모양의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카미노 데 산티아고'의 순례자를 상징하는 증표다. 아픈 발을 이끌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40일을 걸어야 했던 대장정은 끝났지만, 길 위에서 찾은 꿈을 향한 그녀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글 이혜인(편집실)

각자의 길을, 각자의 _____ 속도대로

여행에세이 <딸은 엄마보다 한 발짝 느리다> 펴낸
박정현(정치외교학과 09)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다

엄마는 나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다. 엄마가 그렇게도 가고 싶어 하던 '카미노 데 산티아고'에 나랑 함께 가고 싶다는 것이다. 운전하던 아빠가 말했다. "가고 싶으면 가면 되잖아"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고, 1년간의 짧은 대학 생활이었지만 이미 지쳐버린 나는 "가지 뭐"라고 쉽게 말했다. **순례를 떠나며**

스무 살, 뒤늦게 찾아온 사춘기 때문이었다. 외고 졸업 후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했지만,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갑작스레 주어진 자유를 정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막막하기만 한 현실에서 그저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1학년이 끝날 때쯤, 정현은 어머니(박윤희 씨)에게 편지를 썼다. 커리어우먼이었던 어머니 역시 사업의 고비를 맞아 힘든 시간을 보내던 시기였다. 아버지의 격려에 힘입어, 정현은 휴학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스페인으로 떠났다. 직장에서도 집에서 도 열정적이었던 엄마, 그런 엄마와는 전혀 다른 성향을 지닌 딸. '친구'가 되고 싶었던 모녀는 2010년 봄, 카미노 데 산티아고의 순례자가 되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그렇게 40일

난 나도 모르게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엄마의 삶'만이 옳은 삶이라 생각해왔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꼭 그런 삶만 옳은 건 아니다. 다 각자의 삶이 있는 것이다. 엄마는 정말 설득의 천재인 것 같다. 20년 동안 내 머릿속은 '엄마가 인정하는 게 옳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제 내가 생각을 해야 할 때다. 산티아고 순례 길에 오기 전, 생각했던 바를 다시 검토해본다. **순례 12일째**

평소 러닝머신을 뛰며 체력을 길러온 어머니와 달리, 정현은 그저 '난 엄마보다 젊으니까'라는 생각 하나로 무작정 길을 떠났다. 황톳길과 숲길, 오솔길과 아스팔트길을 번갈아가는 대장정. 피레네 산맥을 넘는 첫째 날부터 고행이 시작됐다. 운동신경 제로인 정현은 난생 처음 먹고 자는 시간만 빼고 하루를 꼬박 걸었다. 두 발은 금세 물집과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어머니와의 서먹한 관계도 문제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끝이 보이지 않는 외길을 같이 걷고, 힘들 땐 벤치에 누워 노래도 부르고, 매일 밤 나란히 잠들며 그동안 잊고 있었던 서로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됐다. 길이 엇갈려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당시 정현의 주머니엔 단돈 20유로뿐. 우여곡절 끝에 산중에 있는 알베르게(순례자 숙소)에서 혼자 보낸 밤, 그곳에서 만난 순례자들은 정현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다친 발을 치료해주었다. "따로 걷는 게 편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헤어지고 나니 내내 엄마 걱정뿐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대신해 나타난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나도,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고. 다행히 다음 날 엄마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딸이 답답했던 어머니도 정현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모녀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서로를 의지하며 40일째, 순례의 종착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입성했다.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 그리고 더욱 애틋해진 모녀간의 사랑을 안고서.

산티아고의 선물, 자신감 그리고 소통

예전에 빛을 잃었던 나는 어느새 없어지고 모든 일에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었다. 언제나 따라가고 싶었지만 따라가지 못했던 엄마의 모습이, 그 자신감이, 함께하는 카미노 데 산티아고 여행 중에 어느새 나에게로 옮겨 온 기분이다.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든다. 나에게게는 결여되었다고 느꼈던 것들을 많이 채웠고, 또 앞으로도 많이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순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정현은 학교에 복학해 어느 때보다 비쁜 나날을 보냈다. 학기마다 '대학 생활 즐기기', '취미 찾기' 등 단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해나가는 보람도 느끼고 있다. 난타와 킥복싱을 배웠고, 전공을 뒷받침할 중국어와 베트남어 공부에도 열심이다. 동아리 임원을 맡아 교환학생들과의 문화교류 행사를 주최하기도 했다. '진짜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했기 때문. 졸업 후 정현의 꿈은 시야를 넓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세계 시장을 개척해가는 것이다. "혼자 힘으로 너만의 길을 창조해나갈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엄마와 진실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워 기뻐요. 기회가 된다면 아빠와 남동생에게도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순례를 하는 동안 거의 매일 뺨집없이 기룩한 모녀의 일기는 1년에 걸친 퇴고를 거쳐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왔다. '산티아고'가 준 소중한 선물이다.

카미노 데 산티아고 Camino de Santiago

카미노 데 산티아고는 스페인어로 '산티아고의 길'이라는 뜻. 프랑스의 국경도시 '생장피에드포르(St. Jean Pied de Port)'에서 출발해 스페인 북서쪽의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로 이어지는 약 800km의 순례길이다. 원주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보통 40일. 최종 목적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의 대성당에는 야고보 성인의 무덤이 안치돼 있다. 본래는 천년 세월을 내려온 기독교의 성지순례 장소였지만 이 길을 걷고 소설가가 된 파울로 코엘료의 작품들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도보여행 코스가 되었다.

입학식은 11시 정각에 시작되었다. 지각한 신입생은 없었다. 마치 법정에 출두하는 변호사처럼 말쑥하게 차려 입은 55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새내기들. 상기된 표정과 총기 가득한 눈빛에는 기대와 각오가 함께 담겨 있다. 경기도 유일의 로스쿨, 그래서 관심과 기대, 협력과 경쟁이 더욱 뜨거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 갈 아주 법조인들의 요람을 들여다본다. 글 이병유(편집실)

정의 · 봉사 지향하는 실무형 법조인 양성

법학전문대학원 탐방

41명의 아주대 로스쿨 첫 졸업생 대부분이 검사 채용을 비롯해 법무법인(로펌)이나 대기업, 개인변호사 사무실 등에 취업했다.



졸업생 상당수 취업, 출발이 좋다

지난 1월 31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은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법조인 실업시대’라는 우려 속에서도 아주대학교 로스쿨의 취업성적은 우수했다. 41명 졸업생 대부분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중민(33) 졸업생이 검사로 최종 채용된 것을 비롯해 30명 이상이 법무법인(로펌)이나 대기업, 개인변호사 사무실 등에 취업했다.

첫 출발이 좋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로스쿨 졸업 후 취업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어려운 취업환경에 위축되어 있지는 않았다. 2012년 아주대 로스쿨 신입생 김예슬 학생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려 법률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면 구조적인 문제는 점점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며 “이제 예비 법조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그 시작이 막연하게 두렵지만은 않다” 고 당찬 각오를 내비쳤다.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교육과정

아주대 로스쿨의 특징점은 무엇보다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1명의 훌륭한 교수진과 법무 현장 실무에 맞춘 커리큘럼이다. ‘기업 실무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중소기업법무센터 운영’ ‘2011 GLOBAL BIZ CEO FORUM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과 교수진이 활발한 소통으로 내실 있는 교육 과정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아주대 로스쿨은 매학기 밀도 있는 강의 평가와 함께 강의 개설에 대한 수요 조사, 학습 환경과 지도교수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종합된 학생들의 의견을 강의개선 보고서(CQ)로 작성하여 학생들의 수요에 맞춘 강의를 신설하고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서 아주대학교 로스쿨의 교육과정 운영체계가 대표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회적 책임 다하는 진정한 법조인

‘나눔과 소통’ 이 화두인 시대다. 아주대학교 로스쿨은 법률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에도 게으르지 않다. 아주대 로스쿨 백윤기 원장은 법률봉사활동에 임하는 학생들의 자세와 봉사활동의 의미를 먼저 강조한다. “로스쿨 학생이 되었다는 것은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사회로부터 제도적으로 보장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학생들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사명감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이를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대학교 로스쿨은 법률봉사활동을 아예 커리큘럼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서 5회 이상의 법률봉사활동을 실천해야 한다. 이밖에 수원 가정법률상담소 및 경기도청에서 가정, 세무, 부동산, 노무, 일반 법률에 관한 법률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 장차 우리나라 법조계를 이끌어 나갈 인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입학의 축사는 길지 않았다. 인재환 총장과 백윤기 원장은 짧지만 힘 있는 악수로 장도(長道)에 오른 예비 법조인들을 격려했다. 3년 후 바로 이 강당에서 펼쳐질 화려한 반전을 예고라도 하듯 입학식은 소박했으나, 그들의 졸업은 오고 가는 축하와 치하로 떠들썩하고 풍성하리라 기대해 본다.

Interview

백윤기 법학전문대학원장



“로스쿨이 법률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혁을 의미”

1월 31일 로스쿨 첫 졸업생 배출의 소회는?

졸업생 한 명 한 명이 자식 같습니다. 매년 40~5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어 법원, 검찰, 변호사, 공무원, 기업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리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뿌듯합니다.

아주대 로스쿨의 차별화 전략은?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실습을 통해 법원의 실력을 발휘하는 ‘실무형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주대 로스쿨의 가장 큰 경쟁력이자 차별화입니다. 또한 서울 다음으로 규모가 큰 법조단지인 아주대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 변호사회와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협회와 특별한 협조와 지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주대 로스쿨 운영과 학생지도 역점사항은?

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다 많은 법률지식을 갖추는 것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 법무법인 등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채용설명회와 취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교수님들께서 직접 학생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의 활약과 향후 전망은?

로스쿨 졸업생들이 법률가로서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기존 법률서비스의 획기적 변혁을 의미합니다. 단지 소송을 대리하는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고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법률서비스 개선은 물론 기업법무팀의 전문성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정부나 기업의 대응이 미흡하여 아쉬움이 많지만, 이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로스쿨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주대 로스쿨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사회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가 아니라, 사회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는 법조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의와 봉사를 지향하는 법률가’라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로 갈음합니다.



흔히 얻을 바라보는 나이는 바빠 달려온 삶을 되돌아보고 안정된 노후를 대비하는 시기로 여긴다. 그러나 20여 년간 몸담았던 분야를 박차고 나와 벤처기업을 설립한 동문이 있다. 바로 IO솔루션의 양국현 대표다. 불혹이 한참 지난 나이에 창업이라는 쉽지 않은 도전을 감행한 그의 진정한 목표는 성공이 아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 을 이루는 것이다.

글 박진희(편집실)

꿈을 이루는 것은 '도전' 에서 시작된다

양국현(기계공학 81) 동문 IO솔루션(주) 대표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소년은 언젠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회사를 만들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진학한다.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자동차 금형제작 분야에 몸담은 지 어언 20여 년. 그동안 자동차의 유리외 타이어만 빼고 모든 부품의 금형을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베테랑이 됐다. 국내 굴지의 금형제작 회사인 에이테크솔루션(주)에서 연구소장으로 8년간 재직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던 2009년 초,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돌연 창업을 결심한다. 그것도 자동차 금형분야의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광학 렌즈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사업은 저의 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자동차 금형 쪽으로 창업하자니 도의적인 부분이 마음에 걸렸죠. 한술밥을 먹던 선배들과 경쟁해야 하니까요. 그러던 찰나 우연히 광학 렌즈 분야를 접하게 됐고 미래 산업이라는 판단이 섰죠. 어려운 분야임에는 분명하지만 제 이름을 걸고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잡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침 원광대학교로부터 장비와 창업보육센터 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거기에 최첨단 광학소재 기술을 보유한 반도체 회사인 미국 RMI와 기술협력을 체결하면서 창업에 박차를 가했다. 광학 렌즈가 제아무리 생소한 분야라 하더라도 자신감이 있었다. 분야는 달랐지만 공학적인 맥락에서 접근하고 기술을 응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갈고 닦은 경험과 쌓아놓은 인맥은 창업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인적 네트워크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연구원을 스카우트할 수 있었죠.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규모보다 기술로 승부하는 회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창업을 결심하고 당면한 첫 과제는 연구원을 뽑는 일이었다. 일본이 주도하고 있던 광학 렌즈 시장을 따라잡기까지 술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양국현 대표 특유의 친화력과 소통 능력은 이때 빛을 발했다. 좋은 대우와 높은 급여를 약속하는 대신 “같이 성장해보자” 고 제안한 것이다.

양국현 동문은 말한다.
“[후배들이] 선배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업을 하고 싶은 후배가 있다면 얼마든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현재 IO솔루션에 몸담고 있는 연구원 수는 12명입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죠. 하지만 연구원 모두가 한 뜻으로 노력해 창업 1년 반 만에 광통신 부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창업 3주년이 되는 올해 일본, 대만, 중국의 에이전트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국현 대표 아내의 섬세한 내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양 대표는 심리학을 전공한 아내의 도움을 받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양 대표가 직접 짰다. 선이 굵고 똑심 있는 첫인상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경영자의 역할은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복돋워주는 것입니다. 인재를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용 이후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직률 0%인 회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신념이 확고한 양국현 대표. 그가 어떤 관계보다 소중히 여기는 인연이 아주대학교 선배들과의 인연이다. 제주도에서 갓 올라온 시골 청년에게 원대한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향해 달리게 했던 곳이 바로 이곳 아주대학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년 ‘홀커밍데이’ 추진위원장과 81학번 동기회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흔쾌히 승낙했다. 까마득한 선배로서 양 대표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에 집중해 꿈을 정확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말이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선배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업을 하고 싶은 후배가 있다면 얼마든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에게 대학 생활은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토대였다. 꿈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더욱 자신감 있게 도전하라고 조언하는 양국현 동문. 모교 후배들의 꿈과 열정을 누구보다 간절히 응원하는 양국현 대표와 같은 선배가 있기에 아주대의 미래는 든든하다.

IO Solution

IO 솔루션은?
광학전문 제조회사로, 주로 방위산업용 장비, 의료기기 부품, 우주산업용 장비 등에 사용하는 정밀 광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군수산업과 보안, 감시 및 생활안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IR(Infrared Ray)용 비구면 렌즈를 전문적으로 설계 가공하여 세계 기술개발의 중심에 서는 것이 목표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날, 아주대 캠퍼스 잔디광장 하늘에 만국기가 걸렸다. 아주대의 대표적인 국제행사인 '아주 인터내셔널데이'가 열린 것. 세계 각국의 문화와 음식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이 행사는 2011년 11월 3일 16회를 맞아, 45개국 약 640명의 학생이 참가해 우정과 화합을 다졌다. 이날 민간 외교관으로 변신한 학생들은 각국별로 마련된 부스에서 자국의 음식, 춤, 노래, 놀이 등을 선보였다. 산타클로스로 분장한 핀란드 학생, '프렌치 키스' 풋말을 목에 건 프랑스 학생, 춤추며 땅을 레게머리가 인상적인 에티오피아 학생, 정열적인 플라멩코 리듬에 맞춰 축제장의 흥을 돋운 스페인 학생 등 나라마다 모습도, 분위기도 각양각색. 글 이혜인(편집실)

아주, 특별한 세계

Ajou International Day



1. "It's really delicious!" 다양한 프로그램 중 단연 인기가 높은 것은 세계음식축제(World Food Festival). 외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조를 이뤄 정성껏 만든 전통 음식을 단돈 500원, 1000원에 맛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부스를 누비며 각국의 식문화를 체험하고, 음식이 담긴 접시를 들고 삼삼오오 잔디밭에 모여 앉아 공연 무대를 함께 즐겼다.

2. 상설체험장에서는 외국 학생들이 제기차기, 널뛰기, 투호 등 우리 전통놀이를 체험하며 축제를 즐겼고 단체 게임으로는 줄다리가 펼쳐졌다. 전통혼례 복장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돼 선남선녀들의 관심을 모았다.

3. 최고의 인기를 누린 부스는 바로 '축제의 나라' 스페인. 전날 밤과 후부터 자정이 넘도록 부스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아주대에서 첫 학기를 시작한 스페인 교환학생 엘레나(Elena)는 "우리 부스에 찾아온 학생들

이 스페인의 문화에 관심을 가져줄 때 기뻐다"며 "전 세계 문화를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어 더욱 뜻 깊은 행사"라고 말했다.

4. 4학기 중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카메룬 교환학생 노버트(Norbert)는 "평소엔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잘 어울리지 못했던 한국 학생들도 오늘날만큼은 적극적인 것 같다. 곧 한국을 떠나는데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며 즐거워했다.

1,931명의 2012년 신입생들이 꿈에 그리던 대학생활을 힘차게 시작했다. 전국적인 입시 혼란 속에서도 2012학년도 아주대학교의 지원율과 학생부 평균등급, 정시 평균등급은 상승했다. 입학처의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의 결과다. 김경래 아주대학교 입학처장으로부터 2012학년도 입시에 대한 총평과 2013학년도 입시계획을 들어본다.

2012학년도

입시

총평

수시·정시 평균경쟁률 상승
정시 학생부 평균등급·수능등급평균 상승



김경래 입학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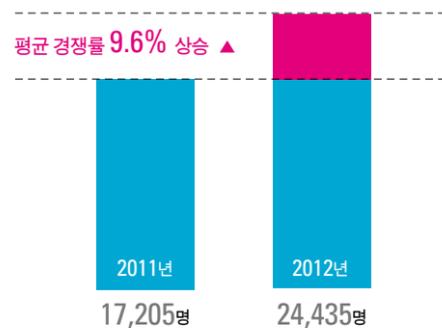
2012학년도 입시는 혼란 속에서 진행되었다. 수시 미등록 인원을 충원하는 첫 해였기에(이는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결국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줄었다는 뜻이다) 그 동안처럼 수능에만 올인하기에는 불안함이 커졌다. 너도 나도 수시모집에 원서를 능력껏(?) 제출했고, 결국 2013학년도부터는 수시 원서접수 6회 제한이라는 규정이 생기게 되었다. 또, 3년차로 접어든 입학사정관전형에 대한 정보가 풍부해지면서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고, 한편으로는 대학들이 복잡했던 전형을 간소화시키면서 입학사정관전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수시모집에서 많은 대학들의 경쟁률이 부쩍 높아졌고 이는 학생들의 성적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학의 입장에서 경쟁률이 높아질수록 전형료 수입도 높아지지만 이보다는 지원자들의 성적이 상승했다는 의미가 더 크다) 정시에서의 혼란은

더욱 심각했다. 수시 충원으로 우수한 학생들은 이미 많이 빠져나가 버린 상태에서, 수능은 쉬워져서 만점자가 6명이나 나올 만큼 변별력이 떨어지고 덕분에 2012대학입시에서 상당수 상위권 대학의 등급컷(마지막 합격한 학생의 점수)이 하락했다.

아주대학교 2012학년도 입시도 이런 큰 회오리에서 크게 벗어나진 못했다. 수시모집 경쟁률은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높아졌다. 수시 지원인원은 24,435명으로 2011학년도 17,205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42%(7,230명)이 증가했다. 평균 경쟁률은 9.6%P 상승했다. 특히 의학부의 경우 220.8대 1로 한양대 의대 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화공신소재공학부, 간호학부, 경영학부 등도 모두 3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정시 지원인원은 16% 감소하긴 했지만 이는 모집정원이 줄어들어 생긴 현상으로 평균경쟁률은 오히려 0.1%P 상승했다.

수시전형에서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지원자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부 평균 성적도 상승했다. (물론 학생부우수자, 경기도우수인재 전형을 제외하면 학생부가 당락을 좌우하는 전형은 없지만, 객관적인 잣대가 없다보니 학생부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형을 간소화한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자들의 평균 등급이 상승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시전형은 타 대학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대학이 등급컷이 낮아진 것에 비해 우리 아주대학교는 수능 등급컷, 등급평균이 상승하였다. 모집단위 분할,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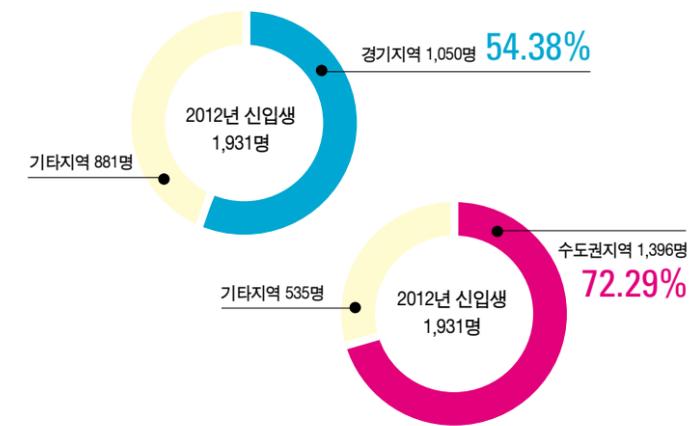
2011, 2012학년도 아주대 수시모집 경쟁률



“정시모집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등급컷이 낮아진 상황에서 아주대의 수능 등급컷, 등급평균은 상승했다.

모집단위 분할과 일대일 상담, 설명회, 모의논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한 것이 주효했다.”

2012년 신입생 경기 및 수도권 학생 분포



수시모집 지원자들에게 일대일 상담, 설명회, 모의논술 등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던 것이 아주대학교에 대한 관심을 끄는데 큰 역할을 했고, 이것이 정시까지 이어진 것 같다)로 아주대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학부모와 수험생에게 전달한 것이 주효치 않았나 싶다.

이제 4월부터는 2013학년도 입학홍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아주대학교에 등록한 2012학번 학생들의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지역 등록인원이 1,931명 중 1,050명으로 전체 등록인원의 54.38%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모두 합치면 1,396명으로 이는 전체 등록인원의 72.29%를 차지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학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본인의 성적에 맞춰 지원하는 전형, 예를 들면 일반전형(논술, 수능)의 등록자의 대부분이 수도권이라

는 사실이다. 같은 성적이라면 수도권학생들이 아주대학교를 선호하고, 지방학생들은 아주대학교보다는 다른 대학을 선호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지금처럼 경쟁률과 성적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홍보(여기서 홍보는 아주대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수시 경쟁률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사교육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특기자전형이나 일반전형보다는 입학사정관전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입학처는 2013학년도부터는 수시전형, 특히 입학사정관전형 홍보에 주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각 지역별로 담당 입학사정관을 지정해 지방을 대상으로 아주대학교 입학사정관전형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각 지역별로 진행되는 각종 박람회, 상담캠퍼스 등의 홍보행사에 담당지역사정관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할 계획으로 사정관들은 할당된 지역의 교사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교육환경, 학교상황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주대학교는 2010년, 2011년 중앙일보 평가 13위로 순위가 많이 상승했다. 하지만 전성기였던 1990년대 후반의 아주대학교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 아주 구성원들은 이에 결코 만족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조만간 그 시절만큼 전국 1% 안에 드는 인재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단언하진 못한다. 하지만 우리 입학처는 그 때보다 더욱 우수한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은 입학처만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아주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주대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각자 자신의 몫을 열심히 한다면 언젠가는 비전 2023이 현실화되어 우수한 수험생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학교가 되어 있을 것이다.

Graduation & Entrance 졸업 및 입학



2011학년도 학위수여식

201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2월 22일 오후 체육관에서 개최되어 박사 56명, 석사 923명 그리고 학사 1,446명 등 총 2,425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공과대학 홍윤표 학생을 포함 정보통신대학 강성철 학생, 자연과학대학 권구범 학생, 경영대학 박태석 학생, 인문대학 김진아 학생, 사회과학대학 박진숙 학생, 법과대학 강인구 학생, 의과대학 장미 학생 그리고 간호대학 김소현 학생이 9개 단과대별 성적 우수자로 총장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자연과학대학의 안상원 학생과 인문대학 이가는 학생이 충동문화장상과 주한프랑스대사상을 각각 수여 받았다. 안재환 총장은 “여러분은 아주대가 배출한 자랑스러운 인재들”이라며 “졸업생들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성공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12학년도 입학식

2012학년도 입학식이 2월23일 오전 10시에 체육관에서 열렸다. 안재환 총장 및 각 단과대 학장, 처장을 비롯하여 신입생 2,000여 명과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이번 입학식은 1부 국민의례, 학사보고, 입학 허가선언, 입학 선서, 입학식사, 박영동 교무처장의 특강 순서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아주대 의대 1기 졸업생이며 아주대 병원 중증의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딥임팩트(Deep Impact)라는 주제로 신입생들에게 특강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 후에는 교내 동아리인 센토, 소울, 비트의 공연이 이어졌다. 안재환 총장은 축사에서 “총장인 저를 포함해 아주가족 모두, 여러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분 모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주대학교에서 열정적으로 시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Focus 주요소식



1 선도연구센터(SRC) ‘유전체불안정성 제어 연구센터’ 개소

‘2011년도 선정 선도연구센터(SRC, Scientific Research Center) 개소식’이 11월 22일 오전 11시 종합관 대강당에서 안재환 총장, 한국연구재단 박성현 본부장, 염기수 교육과학기술부 과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선도연구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우리 학교가 9대 1의 높은 경쟁을 뚫고 ‘2011년도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 이공학 분야 SRC’에 과제명 ‘유전체불안정성 제어 연구센터’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2 송하석 교수, 교육대상 수상

기초교육대학 송하석 교수(사진 가장 왼쪽)가 3월 2일 율곡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2학년도 1학기 개강교수 세미나에서 교육대상을 수상했다. 교육우수상에는 권익진(전자공학부), 정대용(경영학부), 박구병(인문학부), 서주영(강의교수/정보컴퓨터공학부), 서정애(시간강사/기초교육대학)이며 연구우수교수는 3명으로 다산상 김재호(분자과학기술학과), 성호상 김선교(경영학부), 송재상 김대중(의학부) 교수가 선정됐다.



3 약학관 준공식

약학관 준공식이 2월 28일 약학관에서 열렸다. 약학관은 다산관 동측 농구장에 위치하며 지난 5월 기공식 이후 약 10개월 만에 완공됐다.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213평에 강의실, 실습실, 교수연구실, 전공연구실, 동물처치 및 수술실 등의 공간이 들어선다. 안 총장은 축사에서 “약학관은 아주비전2023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우리 아주가족 모두에게 뜻 깊은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대통령 표창

우리 학교가 2011년도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12월 27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우리 학교의 이번 대통령 표창은 타 대학과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해 졸업생들의 취업률과 취업의 질적 수준을 모두 상승시킨 점들을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각종 일자리대책 추진에 모범을 보인 유공자들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조사를 실시하였다.

네팔 카트만두대 기술훈련센터 설립 주관대학에 선정

우리 학교가 12월 26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네팔 카트만두대학교 기술훈련센터 설립 사업의 주관 대학으로 선정됐다. 사업수행 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3년이다. 우리 학교는 2014년까지 카트만두대학교 기술훈련센터 신축과 공개설 및 운영자문, 공동 교재개발, 기자재 지원, 초청연수 등을 통한 자동차/기계 분야의 직업훈련 역량강화 및 기능인력 양성을 통해 네팔의 대내외적인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해 네팔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4회 경기지역 법학교수, 검찰 실무연구회

제14회 경기지역 법학교수, 검찰 실무연구회가 11월 17일 우리 학교 종합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우리 학교와 수원지방법검찰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실무연구회는 <최근 법학의 신동향>이라는 주제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우리 학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진국 교수, 정태용 교수, 전경근 교수, 이현환 법학연구소장이 참석했다.

- 1
- 2
- 3

Focus 주요소식

신임교수 9명 임명

3월 2일 울곡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2년 1학기 개강 교수 세미나에서 신임교수 9명에 대한 임명과 소개가 있었다.



고정한 교수(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석사 및 박사, 대우중공업(현 두산인프라코어) 연구원,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교수



김소희 교수(약학부)
서울대학교 약학과 박사,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Wayne State University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Michigan Medical School Research Fellow



김현아 교수(약학부)
Sanford University Clinical Pharmacy 박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종합약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김흥표 교수(약학부)
서울대학교 약학과 생약학 천연물화학 박사, 피츠버그 의과대학 호흡기 내과 교환연구원/연구교수, 하버드 의과대학 호흡기 내과 강사, 울산대학교 생명공학부 교수



이범진 교수(약학부)
오리건주립대학교대학원 조제학 박사, 영국 런던대학교 약학대학 방문교수,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대미약학 과학자협회 회장, 강원대학교 약학연구소 소장



이석원 교수(정보컴퓨터공학부)
George Mason University Software Engineering 박사, Univ. of Nebraska at Lincoln Visiting Professor, Univ. of Texas at San Antonio Assistant Professor



장선영 교수(약학부)
서울대학교대학원 약품미생물학 박사, 서울대학교 종합약학연구소 선임연구원, Harvard Medical School(MGH) Post-doc Fellow



전세진 교수(환경건설교통공학부)
서울대학교 석사 및 박사, 대우건설 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콘크리트학회 매스콘크리트위원회 위원장



최명원 교수(경영학부)
Univ Georgia 박사, 서울대학교 한국인적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강사

2011년 국가고시 선전

우리 학교 학생들이 2011년도 국가고시에서 선전했다. 사법고시 합격자는 4명, 회계사 합격자는 13명, 세무사 합격자는 9명이다. 사법고시에서는 백종덕(법학과93), 권순명(법학과00), 송성광(법학과03), 방명은(법학과04) 총 4명의 동문이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회계사 합격자는 총 13명으로 이지현(경영학부97), 정호신(인문학부97), 김기현(경영학부98), 김경환(전자공학부02), 황영석(경영학부01), 송경휘(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01), 김건우(경영학부02), 김영호(경영학부03), 문경환(사회과학부04), 김규덕(경영학부04), 최창규(경영학부06), 홍대건(경영학부08), 채희준(경영학부07) 동문이다. 세무사는 9명으로 이지현(경영대학원97), 장문규(경영학부02), 남기정(경영학부03), 정지연(경영학부03), 신태식(경영학부04), 심현식(경영학부04), 이준영(e-biz04), 백혜림(경영학부05), 김병관(경영학부05) 동문이 합격했다.

2012년 신년교례식

2012년 신년교례식이 안재환 총장, 소의영 의료원장, 박유현 총학생회장 등 400여 명의 학교 및 의료원 교수, 직원, 학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월 2일 체육관에서 열렸다. 신년교례식은 포상수여, 아주비전 2023 액션플랜 발표, 총장신년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우리 학교가 일자리창출지원 유공기관으로서 수상한 대통령표창 이외에 국민교육발전유공자로서 교과부장관상에 김수영(자연과학대 교학팀)씨, 경기도체육진흥공로로 경기도지사상에 홍영수(시설팀) 씨가 수상했다. 이외에도 황원복(구매관제팀)씨, 길애숙(정보통신대 교학팀) 씨 그리고 노진호(사회진출팀) 씨가 우수직원으로서 총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로스쿨 학생들 공익소송 제기

우리 학교 로스쿨 재학생들이 한 중소기업이 잘못 납부한 세금을 국가로부터 환급받아주겠다고 국가를 상대로 11월 17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우리 학교 중소기업법무센터를 통해 법무상담을 받았던 A중소기업의 사례를 리걸클리닉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다. 리걸클리닉이란 책으로만 배웠던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소송, 법률상담 등을 진행해 봄으로써 실무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로스쿨 학생들은 소송대리권이 없어 이번 공익소송은 최원 교수의 지도하에 법무법인 대지(대표변호사 조준연)에서 수행한다.

정보컴퓨터공학부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동문회 발대식

정보컴퓨터공학부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동문회 발대식이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우리 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강태현 총동문회장, 임한조 대학원장, 류기열 정보컴퓨터공학부장 등 내외빈을 비롯해 동문과 재학생 등 총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참가한 동문들은 행사장에서 갑자기 마련된 ‘1-1-1 캠페인’ 을 통해 모두 2천800여만 원의 기부금을 약속해 모교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2011학년도 아주대학교 홍보대사 AURA 수료식

아주대학교 홍보대사 AURA(Ajou University Remarkable Ambassador) 수료식이 12월 26일 울곡관 제1회의실에서 안재환 총장과 홍보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수료식을 맞은 홍보대사는 3기 김우식(전자공학부), 5기 오영택(사회과학부), 이혜미(인문학부), 윤희선(정보컴퓨터공학부), 구정미(사회과학부), 6기 장광희(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김순미(인문학부), 김경진(경영학부), 이윤경(경영학부)이다.

Global 국제협력



미국 러트거스대학 캠퍼스와 MOU 및 경영복수학위/교환학생 협약 체결

세계 각국의 대학과 협약 체결

2011년 하반기와 올해 들어 우리 학교가 세계 각국의 학교와 다양한 협약을 체결했다. ▲중국 산둥대학교, 일본 구마모토대학교와 국제교류협정 체결(10월 14일) ▲미국 러트거스대학 캠퍼스와 MOU 및 경영복수학위/교환학생 협약 체결(10월 19일) ▲핀란드 자매대학 University of Eastern Finland와 일반 협력 논의 및 경영박사 복수학위 시행을 위한 MOU 체결(10월 27일) ▲에티오피아 Addis Ababa University, 캐나다 University of Ontario Institute of Technology, 프랑스 Telecom Business School 대학과 자매결연 체결(11월) ▲리투아니아 Mykolas Romeris University와 학부 복수학위 협정(2월 9일) ▲프랑스 공대 EISTI와 교류협력 협약 체결(2월 9일). 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 학교는 세계의 주요 대학과 더욱 활발하게 교류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아시아 대학 랭킹 100위 안의 산둥대학 및 구마모토대학과 정기적인 이공학 분야 워크숍을 실시함으로써 3개 대학의 공동연구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 n+i 네트워크, 우리 학교 방문

프랑스 n+i 네트워크(프랑스 공대 대학연합)가 10월 21일 우리 학교를 방문했다. 프랑스 n+i 네트워크는 프랑스 공대(정통대 포함) 76개 대학 연합으로 해외대학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창설됐다. 우리 학교는 2004년 학생교류 MOU, 2009년 석사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정년기념식에서 케이크를 자르고 있는 김동규 교수(사진 중앙)와 용세중 교수(사진 중앙 우측)

2011학년도 하반기 교원 정년기념식

2011학년도 하반기 교원 정년 기념식이 2월 29일 울곡관 대강당 및 로비에서 열렸다. 이번엔 정년을 맞은 교수는 정보컴퓨터공학부의 김동규 교수와 경영학부의 용세중 교수다. 김동규 교수는 1979년 우리 학교에 부임한 이래 33년간 최첨단 IT분야에 대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열정적인 자세로 연구해 왔다. 1981년 컴퓨터 분야가 태동할 무렵 우리 학교 공과대학 전자계산기공학과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 오늘날 정보통신대학 정보컴퓨터공학부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큰 공헌을 한 바 있다. 학부 교육은 물론 대학원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75명의 석·박사를 배출했으며, 150여 건의 논문 및 저서를 저술해 과학 발전에 이바지 했다.

용세중 교수는 1976년 우리 학교에 부임해 36년간 재직해왔다. 교육행정분야에 있어 경영대학원장, 경영대학장, 사무처장, 대학평가본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내실 있는 교육행정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1990년대 초 경영대학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1990년대 중반 경영관 건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를 통해 1990년대 후반 아주대학교가 국내 10위권 이내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현재는 한국경영교육원 부원장 겸 인증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안재환 총장은 “과거 모든 것이 열악했던 교육환경과 어려운 여건에도 학자로서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인재양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며, 학교를 향한 애정과 열정을 보여주셨던 두 분 교수님들께, 아주가족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밝혔다.

Agreement & Contract 협약 및 체결



1 GM과 공동연구개발협정 체결

우리 학교와 GM이 지난 12월 15일 울곡관 제1회의실에서 공동연구개발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우리 학교가 GM에서 정해 놓은 Academic Partner 대학교의 수준 및 연구역량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약식에는 GM R&D Director Christophe Mangin, GM Korea 박성용 부장, 유재석 연구처장, 김도영 대외협력처장, 최윤희 공과대학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GM은 그동안 세계 우수 대학들과만 공동연구개발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자동차관련 기술 분야의 연구역량 면에서 이미 세계 우수 대학이라는 것을 GM이 인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



2 경기관광공사와 산학협력협약 체결

우리 학교와 경기관광공사(사장 황준기)가 외국인대학생 인턴십에 대한 MOU 를 체결했다. 협약식은 1월 17일 울곡관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인턴십을 통해 중국, 온두라스, 이디오피아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 6명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통역 지원, 경기도 관광 가이드북 번역 및 감수, 관광포털사이트 운영 지원, MICE 사업 관련 번역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3 경찰대와 협약식 체결

우리 학교가 경찰대학과 상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약식을 지난 10월 6일 오후 3시 경찰대학에서 가졌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교는 교수와 학생 교류, 학점 상호 인정, 정보 및 자료 교환, 연구 및 학술회의의 공동 추진, 교직원 복지증진, 대학원 신입학에 관한 사항 등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수원소방서와 심폐소생술 교육협약 체결

우리 학교가 경기도내 대학 중 최초로 심폐소생술(이하 CPR) 교육에 관한 업무협약을 수원소방서와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2월 16일 10시 30분 울곡관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 역시 학교 구성원들이 CPR의 중요성을 알고 대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수원학' 강의 개설, 운영 협약

'수원학' 강의 개설, 운영 협약식이 12월 5일 수원시청 본관2층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식은 수원학 강의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기본 협약 체결을 위한 것으로 수원시와 관내외의 대학 간 수원지역(수원, 오산, 화성시 및 인근지역)의 역사와 문화, 환경, 교육, 산업, 도시발전 등에 대한 '수원학 강의' 를 개설해 수원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확산시키고, 수원의 미래적 가치 창출을 위한 상호 협력이 주된 목적이다.

1
2
3

Professor 교수 소식

1
2
3



김환명 교수, '2011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에 과제 선정

에너지시스템학부 김환명 교수의 과제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선정한 '2011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기초인프라분야에 선정됐다. 김 교수의 성과는 '다체널 생체영상에 적합한 이광자 금속이온 표지자의 개발' 로 과제명은 <넓은 파장 범위의 이광자 금속이온 표지자의 합성>이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한 이광자 표지자는 생체 내에서 진행되는 생물학적인 활성을 실시간으로 영상화하고 이를 통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생명현상을 분자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차세대 생체영상 기술의 핵심 소재다. 이광자 표지자의 개발로 이광자 현미경의 실용화와 함께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이교범 교수, 전기전자분야 최고 저널 부편집장 선임

전자공학부 이교범 교수가 국제전기전자공학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이하 IEEE) 대표저널인 산업전자학술지(Transactions on Industrial Electronics)의 부편집장(Associate editor)으로 선임됐다. IEEE에서 발행하는 산업전자학술지는 최근 5년간 인용지수(Impact Factor) 3.87을 기록할 정도로 산업응용 분야 최고 수준의 저널이며 이 교수는 부편집장으로서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결정 그리고 편집에 참여하게 된다. 이 교수는 2011년도부터 IEEE 수석회원(Senior member)으로서 전력전자 및 산업응용 분야에서 학문적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고계원 교수, 기초과학연구원 초대 이사로 임명

수학과 고계원 교수가 2011년 12월 기초과학연구원 초대 이사로 임명됐다. 기초과학연구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기관으로 이사회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 이상은 교수, 한국환경한림원 초대 회장으로 선출

환경건설교통공학부 이상은 교수가 11월 24일 한국환경한림원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환경한림원은 세계적 화두인 환경과 기후변화 문제를 연구하고 교류하기 위해 학계, 산업계, 정부의 환경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환경단체이다. 향후 다양한 분야의 경험 및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해 세계적 수준의 환경 전문가와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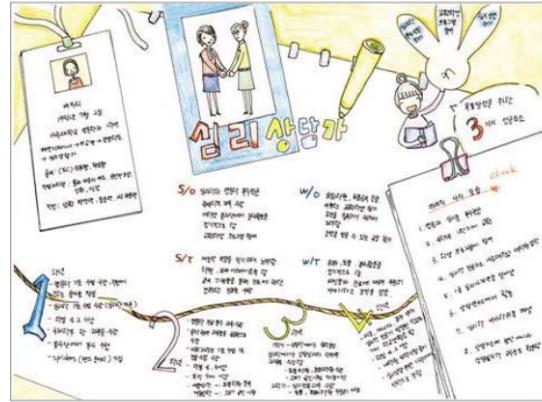
3 박태원 교수,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최우수 논문상 수상

기계공학부 박태원 교수가 대한기계학회가 수여하는 2011년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대한기계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에서 박 교수는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A권에 게재했던 '자동차 와이퍼 시스템의 유연 다물체 동역학 해석' 으로 최우수 논문을 수여받았다.

권정환 교수, 환경공학분야 최고 저널 우수 논문검토상 수상

환경건설교통공학부 권정환 교수가 환경공학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하나인 <환경 과학과 기술 (Environmental Science&Technology)>로부터 2011년 우수 논문검토상(Excellence in Review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저널은 지난 11월호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권 교수를 우수 논문검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저널이 보유하고 있는 5,000명 이상의 검토자들 중 전문성과 시의성에 맞게 논문의 수준 검토에 높이 기여한 자들에게 지난 2003년부터 우수 논문검토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권 교수를 포함한 28명의 검토자가 우수 논문검토상을 수상했다.

Award & Selection 수상 및 선정



배두리 학생이 작성한 '나만의 꿈 전단지' 커리어로드맵

배두리 학생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사례 초청 컨퍼런스 대상

배두리(인문 10) 학생이 12월 22일 한림대에서 열린 '학부교육선진화를 위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사례 초청 컨퍼런스' 에서 학생 참여사례 발표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학부교육선진화지원사업과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에 선정된 88개의 대학이 참여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배 양은 '진로설정워크북을 통한 나만의 꿈 전단지' 란 주제로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본인의 모습을 중심으로 발표해 참가학생들 중 최고 평가를 받았다.

기계공학부, '2011 산학연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력양성부문 우수상

우리 학교 기계공학부가 <2011 산학연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력양성부문 우수상(교육과 학기기술부 장관상 및 상금 200만원)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1월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1 산학연협력 엑스포'에서 진행됐다. 우리 학교 기계공학부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GM KOREA와 공동으로 자동차 제어시스템 엔지니어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산학연협력 교육 및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한 고용증대 및 산업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계공학부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정보공시기준 졸업생 취업률 93%를 달성한 바 있다.

박상혁 학생, 제7기 대학생 글로벌 아카데미-UN 모의총회 수상

박상혁(11 경영학부) 학생이 12월 27~29일 열린 제 7기 대학생 글로벌 아카데미 - UN 모의 총회 (Model UN Conference)에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비영리기업 가온누리에서 주최하고 특임장관실, KOTRA,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산일보사가 후원한 대회로 토론주제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었다. 박상혁 학생은 참여도, 피드백, 주제 적합성, 토론내용, 발표, 질문답변 등 평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보컴퓨터공학부 학생들, 지식경제부 주최 한이음 공모대전 우수상

우리 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이 10월 27~11월 2일 열린 '한이음 공모대전(지식경제부 주최)'의 IT대학 자유공모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한 학생들은 장준호(정컴학부 04), 정동재(정컴학부 05), 마인화(정컴학부 05), 박진관(정컴학부 06) 학생으로 손태식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우리 학생들은 The Fake라는 팀명으로 참가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위한 멀티로그인 어플리케이션'을 주제로 원하는 여러 다른 환경설정을 하나의 폰에서 멀티인증을 통해 제공하며 단순히 보안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내용이었다.

Ajou Univ. Medical Center 아주대의료원



국민포장을 수상한 이국종 교수(사진 우측에서 두번째)

이국종 교수, 국민포장 수상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군 선장을 치료한 이국종 교수가 10월 31일 청와대 본관 총무실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이국종 교수는 지난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작전에서 치명적인 총상을 입은 석해군 선장을 치료한 공로가 인정돼 포장을 받았다.

아주대의료원, 하노이 의과대학과 MOU체결

우리 학교 의료원이 10월 10일 의료원 별관 4층 회의실에서 베트남 하노이 의과대학과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원과 하노이 의과대학은 베트남 의사 연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진료, 연구, 교육 부문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소의영 의료원장, 임기영 의과대학장, 유희석 병원장, 조기홍 기획조정실장, 김홍수 제1진료부원장과 하노이 의과대학의 Luu Ngoc Hoat 부학장, Kieu Dinh Hung 연수센터 부소장이 참석했다.

아주대병원, 중앙일보 병원평가 최우수 평가 획득

우리 학교 병원이 최근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J닥터 2011 병원평가'에서 관상동맥우회술, 급성뇌졸중, 혈액투석, 엉덩이관절 치환술 분야 4개 항목에서 최우수 병원으로 평가됐다. 이번 중앙일보 평가는 대형 대학병원 44곳, 종합병원 298곳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6개 항목(급성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술, 급성뇌졸중, 혈액투석, 엉덩이관절 치환술, 자연분만)을 점수화하여 항목별, 지역별로 평가한 것이다.

국립보건연구원과 연구협력 MOU 체결

1월 11일 우리 학교 의료원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근거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병원 지하1층 이주홀에서 연구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요구 증대 및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에 따른 임상연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두 기관이 임상시험을 비롯한 임상연구 분야와 감염성, 비감염성질환의 연구 분야에서 공동연구, 자원공유, 학술 교류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보건연구센터, 글로벌 고령화 연구네트워크 선정

아주대의료원 노인보건연구센터(센터장 : 이윤환 교수)가 11월 5일 세계노년학, 노인의학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Geriatrics, IAGG)로부터 글로벌고령화연구네트워크(Global Aging Research Network, GARN)에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에 세계노년학, 노인의학협회의 글로벌고령화연구네트워크에 선정된 아주대의료원 노인보건연구센터는 앞으로 고령화와 관련된 정보교환, 전문가 교류, 협력연구사업 등 국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아주사랑

아주대학교는 무한경쟁을 기회 삼아 '더욱 앞서가는 대학',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대학' 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2011년 하반기, 많은 분들이 아주대학교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주대를 사랑하는 진심어린 후원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1 81학번 발전기금 2억 5천만원 약정

81학번 동문 200명이 11월 5일 발전기금 2억 5천만원을 약정했다. 양국현 동문은 "학교가 많이 발전한 것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 우리 동문들도 앞으로 모교사랑을 직접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2 축구부 학부모회, 1천만원 기부

우리 학교 축구부 학부모회에서 축구부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부했다. 기증서 전달식은 12월 19일 총장실에서 열렸다. 김기온 축구부 학부모회 회장은 "지난 여름 전국대학축구대회에서 우리 학교의 우승을 계기로 축구부가 부흥하는 원년의 해가 되길 바라며 학부모들의 뜻을 모았다" 고 밝혔다.

3 안정환 동문, 2천만원 상당 물품 약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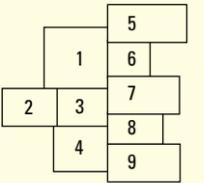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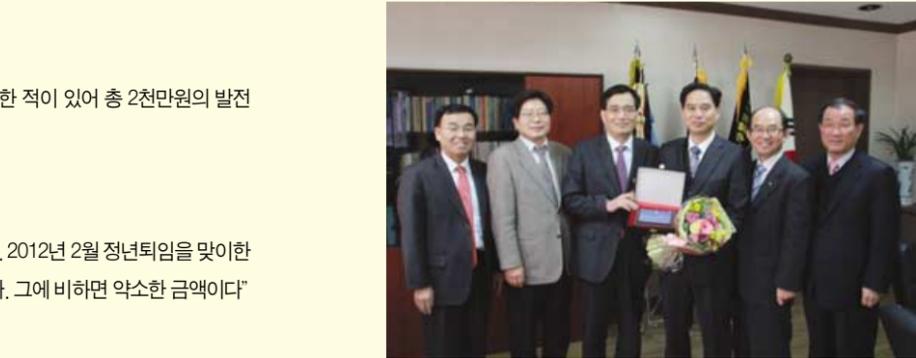
'반지의 제왕' 안정환 동문(경영학부 94학번)이 우리 학교 축구부에 2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약정했다. 안 동문은 1월 3일 오후 2시 직접 총장실에 찾아와 축구부 후배들을 위해 약정서를 전달했다. 안 동문은 "국가대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 원동력이 바로 아주대학교였다" 며 "추운 겨울에도 꿈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기부를 결정했다" 고 밝혔다.

4 경영대학원 이삼구 총동문회 회장, 1천만원 발전기금 전달

안재환 총장이 경영대학원 이삼구 총동문회 회장에게 발전기금 약정에 대한 감사패를 지난 1월 25일 전달했다. 이삼구 동문은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납입했으며, 전에도 1천만원을 납입한 적이 있어 총 2천만원의 발전기금을 납입했다.

용세중 교수, 발전기금 1천만원 기부

용세중 교수(경영학부)가 12월 8일 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부했다. 2012년 2월 정년퇴임을 맞이한 용 교수는 "그동안 아주대학교에 재직하면서 받은 것이 너무 많다. 그에 비하면 약소한 금액이다" 며 "학교발전을 위해 잘 써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5 안산·시흥지부 동문회 학교 발전기금 전달

안산·시흥지부 동문회(회장 박장현)가 12월 18일 학교발전본부를 통해 발전기금 1천1백25만원을 전달했다. 이 지역 동문회 송년모임이었던 이날 박장현 회장은 이 지역 대표로 안재환 총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학교 발전에 조그만 힘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안 총장은 이날 송년모임에 참석해 "사회 각계, 각층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동문들이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학교 발전에 많은 관심과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고 말했다.

6 아주대학교 직원노조 발전기금 1천만원 전달

우리학교 직원노조가 학교발전에 써달라며 12월 9일 1천만원을 기탁했다. 직원노조를 대표로 기금을 전달한 고병수 지부장은 "아주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뜻을 모아 소중한 돈을 전달한다. 더 좋은 아주대학교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7 축구부 졸업생 동문회, 축구부 발전기금 1천만원 기부

축구부 졸업생 동문들이 축구부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발전기금은 축구부 졸업생 동문들의 뜻을 모은 것으로 축구부 인조잔디 설치비용으로 기부한 것이다. 12월 6일 총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형식 대학발전본부장, 송현호 학생처장, 박일분 학생팀장, 하석주 축구부 감독, 최동욱 축구부 졸업생 동문회장이자 현 울진중 축구부 감독이 참석했다.

8 박현주 양, 발전기금 아이디어 공모전 우승

박현주(정보컴퓨터공학부 09) 학생이 대학발전본부에서 주최한 '아주대학교 발전기금 아이디어 공모전' 에서 1등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월 30일 대학발전본부에서 진행됐으며 박 양 이외에도 수원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인 김도영 씨와 동문인 광창식 씨가 각각 2등과 3등상을 수상했다. 박현주 학생은 SNS를 이용해 동문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락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도영 씨는 재능기부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발전기금으로 모금하는 방안을 그리고 광창식 씨는 기부음향회를 통한 기금 모금을 제안했다.

9 정보통신대학 학생회에 감사패 전달

안재환 총장이 지난해 11월 3일 5백만원을 기부한 정보통신대학생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보통신학생회는 학생회 경비를 아껴 기부한 것으로 이 기부금은 가계곤란 학생 장학금으로 쓰이게 된다. 민경준 정보통신대학 학생회장은 "환경이 어려워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아주사랑

장학금 및 발전기금 기부자(2011.8~2012.1)

교직원 교수	강현 / 고계원 / 고영배 / 권오필 / 김광섭 / 김광윤 / 김동근 / 김병관 / 김성배 / 김서용 / 김성완 / 김성환 / 김순태 / 김영래 / 김용진 / 김재호 / 김정호 / 민경도 / 박만규 / 박범 / 박인휘 / 백윤기 / 서문호 / 소병천 / 손태식 / 오동석 / 오승한 / 왕지남 / 용세중 / 위영철 / 윤우일 / 윤태영 / 이경호 / 이교범 / 이규상 / 이상수 / 이승길 / 이완근 / 이원희 / 이윤제 / 이재호 / 이준섭 / 이진국 / 이철기 / 이해영 / 이현환 / 임재성 / 임한조 / 장정애 / 전경근 / 전용호 / 정태용 / 조영호 / 조지만 / 주일로 / 최진안 / 최희갑 / 한상돈 / 한영수 / 한지영 / 현진권
교직원 직원	강경우 / 강경희 / 강민철 / 강영화 / 강필승 / 강한현 / 고명식 / 고병수 / 구자영 / 권용금 / 권혁표 / 금기승 / 길애숙 / 김경규 / 김경숙 / 김경화 / 김경효 / 김관기 / 김규남 / 김근 / 김근태 / 김기문 / 김동석 / 김동현 / 김성아 / 김수영 / 김순석 / 김승권 / 김시천 / 김영기 / 김용근 / 김윤기 / 김은희 / 김인애 / 김재은 / 김점영 / 김중현 / 김주용 / 김중화 / 김지선 / 김지인 / 김지혜A / 김지혜B / 김형근 / 김형식 / 김혜진 / 나기석 / 나명순 / 노동현 / 노진호 / 문현배 / 박민경 / 박성숙 / 박순진 / 박일 / 박정자 / 박제덕 / 박종채 / 박지원 / 박천민 / 박철균 / 박하나 / 배영환 / 서일준 / 손형주 / 송은주 / 송준엽 / 송홍배 / 신형철 / 신정수 / 신정철 / 신형섭 / 심재섭 / 안선미 / 안영식 / 안영찬 / 안재현 / 양광모 / 양성모 / 양일열 / 엄일중 / 오상탁 / 오용직 / 오원 / 오은애 / 우용재 / 위은경 / 유경호 / 유남경 / 유시대 / 유승구 / 윤영화 / 윤정용 / 윤혜정 / 이강준 / 이경희 / 이근 / 이기홍 / 이덕원 / 이도섭 / 이동렬 / 이동섭 / 이명희 / 이미영 / 이미자 / 이병근 / 이상현 / 이석원 / 이선형 / 이성아 / 이수영 / 이윤정 / 이은경 / 이은규 / 이은실 / 이은호 / 이인풍 / 이종원 / 이지운 / 이지희 / 이태재 / 이하림 / 이현규 / 이홍수 / 인정숙 / 임군진 / 임승오 / 장영수 / 장주아 / 전민우 / 정기훈 / 정말희 / 정병문 / 정세훈 / 정영근 / 정우준 / 정정문 / 정해근 / 정홍락 / 제갈훈 / 조경숙 / 조우철 / 조재현 / 조환 / 진명주 / 진성호 / 천순자 / 최영호 / 최재환 / 최정영 / 최진구 / 최창기 / 최춘석 / 최희자 / 한준 / 허택만 / 홍영수 / 황성준 / 황원복
동문	강경원(기계81) / 강동주(전자81) / 강산규(항공79) / 고승창(항공73) / 김관권(경영81) / 김근표(항공83) / 김기호(재료84) / 김명철(전자78) / 김선기(전자79) / 김선홍(기계81) / 김숙영(영문80) / 김승범(경영90) / 김승열(산업대학원) / 김연석(기계81) / 김용태(심리90) / 김의중(기계81) / 김정근(산공79) / 김중권(전자3) / 김진태(기계11) / 김창주(산공81) / 김태영(기계81) / 김태한(산업대학원) / 김필기(전자81) / 나창용(경82) / 나충주(항공87) / 남상석(재료86) / 노희정(전자81) / 류승우(항공91) / 만성용(영문80) / 문재경(재료6) / 문호연(기계81) / 박기범(미디어99) / 박기준(IT대학원) / 박상오(기계79) / 박성진(전산86) / 박정현(산공76) / 박종경(항공81) / 백승흠(불문79) / 변영자(교육대학원) / 서문옥(경영81) / 서형식(재료84) / 소귀섭(IT대학원) / 송종식(불문83) / 심인석(항공77) / 안승태(재료85) / 양국현(기계81) / 양승(산업시스템00) / 여인구(기계78) / 오정락(전산81) / 오태원(재료84) / 윤춘기(기계84) / 이경중(항공80) / 이동원(재료84) / 이병조(기계81) / 이삼규(경영대학원) / 이상문(IT대학원) / 이영국(기계81) / 이재성(화79) / 이재평(재료84) / 이종균(항공81) / 이종연(경영82) / 이지한(기계98) / 이창민(전자02) / 장삼진(경영학원07) / 장선규(항공79) / 전병홍(경영78) / 정동일(전산81) / 정문규(기계80) / 정재원(경영83) / 조학선(경영78) / 최동욱(경영89) / 최성달(산업대학원) / 최성일(IT대학원) / 최영규(IT대학원) / 최종욱(산공78) / 허석주(경영86) / 한윤희(기계79) / 허석수(재료84) / 홍성길(경영83) / 홍중화(IT대학원) / 황창호(경영78) / 미래를전자 대표:김기호(재료84) / 정보통신대학 학생회 / (사)아주대학교 동문장학회 / (주)벤틀코리아 대표:김대현 / (주)성호스텐 김기권(경영대학원) / (주)자울소프트 대표:박기준(IT대학원)
일반	김명식 / 유승미 / 최용기 / 한영수 / 장승택 / (주)동양특수금속 / (주)엘리트 / (주)우리은행 동수원지점 / (주)우주일렉트로닉스 / (주)웹스켄 / 비티에스테크놀로지스(주) / 삼광의료재단 / 영동상사 / 의료법인녹십자재단 / ㈜한국정보통신 / 카트라인 아시아 서울㈜ / SC제일은행 수원(대표:정승화(경영78) / (제)경동장학재단 이사장:김용욱 / (제)구원장학재단 이사장:황필상(기계73) / (재)네오연의학연구소 / (재)서울의과학연구소 / (재)아경장학재단 이사장:한재수(경영대학원96)
학부모	박춘자 / 안종길

1-1-1 캠페인 기부자(2011.8~2012.1)

교직원 교수	김동근 / 고근하 /곽노준 /곽명숙 / 권순정 / 권오필 / 권익진 / 김경래 / 김도영 / 김동완 / 김문석 / 김민구 / 김병근 / 김상열 / 김수용 / 김승주 / 김영길 / 김영숙 / 김영진 / 김유권 / 김재현 / 김춘자 / 김현욱 / 김형수 / 김형택 / 김혜선 / 김호섭 / 김홍수 / 김홍식 / 노민수 / 문승재 / 문은표 / 문창규 / 문혜원 / 민병현 / 민철기 / 박기동 / 박기현 / 박만규 / 박범 / 박성진 / 박승규 / 박영동 / 박용배 / 박용환 / 박인규 / 박재연 / 박정식 / 박지원 / 박진희 / 박태원 / 방승진 / 백윤기 / 백은주 / 범진환 / 서경원 / 서문호 / 서원희 / 소의영 / 손정훈 / 손태식 / 송용진 / 송현호 / 신준한 / 신호준 / 안영환 / 안현남 / 엄동일 / 오영태 / 오영택 / 용세중 / 유동문 / 유문숙 / 유미애 / 유재식 / 유희석 / 윤원식 / 윤현철 / 이경중 / 이교범 / 이기근 / 이병욱 / 이분열 / 이삼민 / 이성업 / 이수진 / 이숙향 / 이자성 / 이정원 / 이종찬 / 이준섭 / 이지연 / 이재우 / 이철기 / 이형천 / 이혜경 / 임기영 / 임석철 / 임재성 / 임재익 / 장중순 / 장혜영 / 전영목 / 전용호 / 정경훈 / 정기현 / 정연호 / 정윤희 / 정윤소 / 정이숙 / 정인하 / 정태선 / 조광국 / 조광순 / 조기홍 / 조두진 / 조영호 / 조재형 / 조중열 / 조하연 / 조혜성 / 차영선 / 최경희 / 최상돈 / 최수영 / 최윤호 / 최태영 / 하여화 / 한호 / 함형미 / 함효준 / 현명선 / 홍성기
교직원 직원	갈원모 / 강한현 / 고병수 / 고순재 / 구자영 / 권용금 / 권주연 / 김경숙 / 김관기 / 김규남 / 김근 / 김근태 / 김기문 / 김기현 / 김동석 / 김성준 / 김수영 / 김승권 / 김시천 / 김영국 / 김영기 / 김용순 / 김윤기 / 김은희 / 김인애 / 김재은 / 김경효 / 김중현 / 김지혜A / 김형근 / 김형식 / 나기석 / 나명순 / 남현우 / 노동현 / 노학래 / 문병철 / 문영준 / 문재호 / 박민경 / 박봉기 / 박성숙 / 박일분 / 박재홍 / 박종채 / 박철균 / 배영환 / 백선희 / 송미숙 / 송성용 / 송수근 / 송은주 / 송홍배 / 신형철 / 신정수 / 신정철 / 신형섭 / 심우영 / 안선미 / 안순일 / 안영찬 / 안재환 / 양광모 / 양성모 / 양희창 / 오상경 / 오상탁 / 우용재 / 우효정 / 위정식 / 유경호 / 유시대 / 육현민 / 유승구 / 윤재승 / 윤진 / 윤혜정 / 이강준 / 이기욱 / 이기홍 / 이도섭 / 이동렬 / 이명희 / 이미영 / 이미자 / 이병근 / 이석원 / 이선형 / 이성아 / 이수영 / 이영욱 / 이영철 / 이영현 / 이윤용 / 이은경 / 이은규 / 이인풍 / 이재의 / 이정미 / 이지현 / 이태재 / 이현규 / 이호중 / 인정숙 / 장세덕 / 장영수 / 장준교 / 정기훈 / 정세훈 / 정정문 / 정해근 / 정홍락 / 조경숙 / 조환 / 지승렬 / 진성호 / 천순자 / 최성혜 / 최영호 / 최정영 / 최진구 / 최창기 / 최춘석 / 최희자 / 허택만 / 현남주 / 홍영수 / 황원복
동문	강정규(경영79) / 강경원(기계81) / 강기현(항공79) / 강두경(산공97) / 강명희(경영80) / 강병돈(산공85) / 강석배(경영83) / 강석환(항공81) / 강산규(항공79) / 강선호(전자74) / 강영모(경영대학원10) / 강윤환(항공80) / 강진모(물리88) / 강태현(전자75) / 강호출(재료84) / 강훈(항공76) / 강희석(전자84) / 강희진(경영86) / 경정현(경영84) / 경태영(경영80) / 고강현(산공82) / 고간용(미디어03) / 고대권(산공81) / 고동식(전자80) / 고병각(산공96) / 고성민(환경85) / 고재만(전자80) / 고제상(국문85) / 고종섭(산공77) / 곽옥경(불문80) / 광정신(경영96) / 광참식(경영83) / 구병춘(기계81) / 구유복(기계87) / 구자현(기계76) / 구혜진(전자89) / 권광우(경영90) / 권기형(전자80) / 권대진(환경81) / 권범윤(기계75) / 권영민(전자79) / 권오준(전자89) / 권우택(항공81) / 권재일(의학89) / 권주빈(전자89) / 권태인(기계81) / 권혁동(산공79) / 권혁민(항공75) / 금동순(기계78) / 김경규(경영87) / 김경현(전자75) / 김경희(기계79) / 김경희(불문81) / 김구용(기계81) / 김규봉(항공81) / 김규진(경영88) / 김기섭(재료84) / 김기준(경영대학원05) / 김기창(경영대학원06) / 김기태(기계79) / 김기호(재료84) / 김길성(경영90) / 김남기(경영80) / 김대용(전산86) / 김대용(항공96) / 김대홍(산공77) / 김동규(경영86) / 김동백(경영90) / 김동욱(전산86) / 김동욱(환경92) / 김두용(산공78) / 김두호(전자76) / 김명식(경제82) / 김미숙(국문91) / 김민(건축02) / 김민용(항공80) / 김범수(사회과학부01) / 김병기(기계85) / 김병섭(전산81) / 김병주의학92) / 김병준(항공82) / 김봉렬(산공79) / 김봉준(경영98) / 김상권(산공80) / 김상동(기계80) / 김상선(기계80) / 김석훈(경영78) / 김선규(항공90) / 김선기(전자79) / 김선태(기계78) / 김성만(IT대학원06) / 김성우(항공79) / 김성원(기계96) / 김성철(기계85) / 김성현(전자78) / 김성희(기계77) / 김세득(영문79) / 김세영(산공79) / 김세철(전자78) / 김소현(미디어00) / 김승암(항공75) / 김수근(영문79) / 김수기(기계78) / 김수철(항공73) / 김수현(환경95) / 김순미(인문학부10) / 김승규(영문80) / 김승진(IT대학원) / 김승희(항공88) / 김시범(전자79) / 김시원(경영90) / 김양현(전자80) / 김연석(기계81) / 김연수(전자80) / 김영무(기계90) / 김영서(재료86) / 김영주(기계79) / 김영중(산공79) / 김영중(전자80) / 김영찬(전자81) / 김오용(환경81) / 김용갑(전자81) / 김용경(전자91) / 김용구(산공80) / 김용국(산공03) / 김용기(산공80) / 김용운(전자80) / 김용태(심리90) / 김용호(기계77) / 김우원(경제89) / 김욱중(기계79) / 김원식(미디어03) / 김유복(기계80) / 김유신(전산83) / 김윤정(기계78) / 김윤태(기계83) / 김은호(항공77) / 김익환(항공79) / 김일수(전자81) / 김재정(기계79) / 김재호(산공78) / 김재호(기계81) / 김재환(전산82) / 김정권(경영80) / 김정현(전자81) / 김정호(환경84) / 김제경(항공77) / 김중근(전자78) / 김종길(기계79) / 김종남(항공79) / 김종범(경영80) / 김중선(항공81) / 김중수(경영91) / 김중오(전자81) / 김중원(기계80) / 김중준(전자79) / 김중철(영문80) / 김중현(컴공96) / 김주봉(산공78) / 김주석(수학87) / 김주태(불문80) / 김주환(기계78) / 김준용(사학99) / 김중구(산공73) / 김지관(산공79) / 김지호(전자78) / 김지홍(기계78) / 김진명(전자82) / 김진명(전산85) /

아주사랑

1-1-1 캠페인 기부자(2011.8~ 2012.1)

김진수(전산82) / 김진안(행정85) / 김진우(기계77) / 김진원(기계81) / 김진희(전자01) / 김진효(경영83) / 김찬우(전자81) / 김창규(항공01) / 김창균(전자80) / 김창욱(경영78) / 김창초(경영84) / 김창주(산공81) / 김창진(항공85) / 김창희(전자79) / 김철수(영문80) / 김철호(경영81) / 김태경(항공79) / 김태식(기계81) / 김태영(기계81) / 김태욱(전자80) / 김태훈(경영대학원06) / 김필기(전자81) / 김학구(항공79) / 김학철(화학96) / 김한복(기계76) / 김한규(기계79) / 김현(경제97) / 김현섭(경영91) / 김현준(전산85) / 김현진(항공80) / 김형식(전자81) / 김형우(전자94) / 김형준(환경84) / 김홍보(산업대학원11) / 김홍석(경영78) / 김환욱(경영96) / 나중호(경영87) / 나창운(항공80) / 나창일(산공81) / 나태영(전자97) / 남광희(동문) / 남궁규태(기계79) / 남상신(산공83) / 남승우(경영96) / 남승현 (법학03) / 노시평(항공79) / 노천규(항공80) / 노희정(전자81) / 류상현(기계80) / 류원대(경영대학원08) / 류종규(행정04) / 류지상(전산86) / 류홍천(전자79) / 미영섭(전자81) / 명재호(컴공87) / 문경식(항공80) / 문관수(전자79) / 문양현(전자79) / 문연숙(불문79) / 문영춘(전자77) / 문유건(산공82) / 문재경(재료86) / 문화복(전자81) / 미래공(조주)대표:어경태(경영86) / 민병갑(기계80) / 민병윤(경영80) / 민정기(경제84) / 민준영(산공78) / 박강서(전자79) / 박간수(항공80) / 박건용(전자95) / 박경수(전산82) / 박경업(산공87) / 박경준(기계80) / 박경현(산공81) / 박광준(기계76) / 박광호(전자80) / 박근우(항공84) / 박기원(경제85) / 박기준(행정88) / 박낙원(산업대학원06) / 박대원(경영89) / 박동애(불문80) / 박동진(산공79) / 박맹상(경영90) / 박문산(전자97) / 박문순(경영86) / 박문찬(경영95) / 박미희(경영80) / 박병우(영문79) / 박병윤(환경88) / 박병창(항공82) / 박상오(기계79) / 박상욱(항공88) / 박성준(기계78) / 박성진(전산86) / 박성환(기계80) / 박세규(산공79) / 박수진(전자80) / 박수진(항공80) / 박순식(산공87) / 박순웅(경영93) / 박안홍(기계79) / 박연희(경영04) / 박영동(항공79) / 박영복(전자79) / 박영석(항공80) / 박영애(산업대학원11) / 박우경(불문80) / 박운영(석사) / 박원희(기계83) / 박유성(전산82) / 박인기(경제84) / 박재길(기계74) / 박재훈(전자79) / 박종경(항공81) / 박창기(항공80) / 박중석(산공87) / 박중용(산공78) / 박중원(경영87) / 박중윤(전자80) / 박중춘(경영79) / 박주연(컴공96) / 박주원(항공80) / 박진호(전자83) / 박찬웅(전자76) / 박찬효(경영79) / 박창동(항공77) / 박철(산공80) / 박충림(불문80) / 박태동(기계79) / 박희(전자85) / 박홍준(전자79) / 박환창(불문84) / 박효순(기계81) / 박희진(항공79) / 박희태(산공73) / 반영무(기계77) / 반철희(경제84) / 방경원(전자80) / 방병천(전자80) / 배성준(전자80) / 배익호(전자03) / 배학원(기계80) / 백성우(환경81) / 백성천(산공81) / 백차현(전자99) / 변경수(항공78) / 변동진(경영84) / 변태환(불문80) / 보광토탈이엔지(주)대표:백재민 (TS대학원10) / 부춘성(항공82) / 서기준(경영03) / 서명원(화학87) / 서미희(산업대학원11) / 서보건(경영97) / 서부현(기계79) / 서상훈(환경81) / 서성택(기계80) / 서수현(경영97) / 서영덕(생명과학8) / 서정현(기계78) / 서화덕(기계87) / 석광열(영문80) / 선호득(기계78) / 손두현(산공79) / 손석상(산공80) / 손순환(항공80) / 손지영(경영01) / 손태원(경영83) / 송경수(경영85) / 송근섭(경영80) / 송기상(전자79) / 송기찬(전자82) / 송명동(항공84) / 송병식(기계76) / 송승용(컴공87) / 송원준(불문80) / 송재규(산공85) / 송정수(건축99) / 송중식(불문83) / 신경우(경영78) / 신동주(경제95) / 신동철(환경89) / 신동혁(전산81) / 신동희(전자77) / 신두철(불문79) / 신영호(전산85) / 신병우(산공79) / 신승민(항공78) / 신영철(전자81) / 신용강(경영84) / 신용식(경영82) / 신의수(114마을) (경제82) / 신재윤(산업대학원11) / 신정섭(기계80) / 신정진(기계85) / 신종대(환경86) / 신준하(항공98) / 신준호(경영83) / 신창효(법학88) / 신춘섭(항공73) / 신태창(항공79) / 신헌순(산공79) / 신헌주(환경99) / 신희연(전자80) / 심관용(경영84) / 심우성(경영84) / 심용섭(영문80) / 심인석(항공77) / 심정철(전자84) / 안병식(기계74) / 안병철(전자88) / 안병철(경영81) / 안선호(기계81) / 안승태(재료85) / 안예환(산공79) / 안재성(재료94) / 안재영(산공80) / 안창영(전자81) / 안창준(기계80) / 안철순(산공77) / 안치규(기계80) / 안태훈(전자80) / 안호영(경영84) / 양광하(기계76) / 양국현(기계81) / 양문모(전산85) / 양미령(생명과학07) / 양병용(기계80) / 양성식(기계79) / 양승권(전자81) / 양승렬(기계79) / 양시영(기계81) / 양영재(경영93) / 양인식(전자78) / 양정현(기계11) / 양호진(산공81) / 어승규(기계79) / 어윤하(기계81) / 엄경이(영문84) / 엄민희(경제92) / 엄재득(산공79) / 엄정완(기계79) / 엄태문(기계78) / 엔에프씨(NFC)대표:류우영(화학89) / 염우영(국문95) / 오경윤(전산85) / 오귀석(전자78) / 오성원(경영95) / 오영근(산공79) / 오재영(기계81) / 오정락(전산81) / 오주영(항공80) / 오준서(건축11) / 오창준(불문80) / 오태승(산공81) / 오택원(항공79) / 오희준(항공04) / 용은희(사학95) / 우병주(기계82) / 우상혁(기계88) / 우신석(항공81) / 우완균(전자79) / 우진ભટ્ટ(공업)대표:정선호 (산업대학원) / 우창원(기계79) / 원종남(전자79) / 원주경(환경86) / 원치호(전자05) / 유갑진(기계81) / 유광열(전자73) / 유기상(경제84) / 유영호(경영80) / 유병대(전자75) / 유상근(환경83) / 유상원(국문92) / 유성렬(전자77) / 유승선(전산87) / 유용수(경영84) / 유용식(전자80) / 유인상(전자80) / 유재권(경영81) / 유홍삼(기계76) / 유태근(항공80) / 유티정보(주)대표:이대원(산공85) / 유한석(기계78) / 유현준(산공75) / 윤기원(항공78) / 윤석희(기계73) / 윤승원(전자82) / 윤영주(산공00) / 윤중엽(항공78) / 윤춘기(기계84) / 윤황(국문83) / 은유진(컴공89) / 음광열(산업대학원) / 이강기(경영83) / 이강현(전자75) / 이건화(산공79) / 이경섭(기계81) / 이경재(기계74) / 이경중(항공80) / 이경현(기계79) / 이계주(산공80) / 이광노(항공85) / 이광원(기계81) / 이광중(경영81) / 이광호(산공78) / 이규철(전자73) / 이근석(기계80) / 이금숙(불문79) / 이기근(경영88) / 이기중(TS대학원) / 이대범(경영84) / 이동기(전자80) / 이동원(재료84) / 이두영(산공78) / 이만성(기계78) / 이만호(경영78) / 이명운(기계75) / 이문근(전산86) / 이문하(항공86) / 이미경(교육대학원06) / 이민경(경영01) / 이병규(전자73) / 이병선(경영79) / 이병엽(경영85) / 이병조(기계81) / 이병호(전자80) / 이상(산공81) / 이상성(경영89) / 이상원(환경05) / 이상원(전자80) / 이석현(경영대학원03) / 이성근(컴공96) / 이성식(전자77) / 이성식(국문83) / 이성식(기계74) / 이성영(산공77) / 이성운(기계81) / 이성윤(산공81) / 이승호(경제84) / 이수원(경영대학원09) / 이순태(항공73) / 이순택(기계81) / 이승근(기계80) / 이승재(항공76) / 이승현(전자82) / 이연강(전자79) / 이연희(불문79) / 이영국(산업대학원10) / 이영국(기계81) / 이영범(경영86) / 이영석(산공79) / 이영일(경영80) / 이영호(전자80) / 이왕형(경영85) / 이용로(기계79) / 이용복(기계77) / 이용수(기계81) / 이용욱(경영81) / 이용운(항공80) / 이용재(전자78) /

이우암(경영81) / 이윤갑(경영79) / 이윤호(항공89) / 이윤교(산공78) / 이은성(불문79) / 이응정(경영87) / 이응표(불문79) / 이인규(환경81) / 이인호(전자79) / 이일주(전산81) / 이재성(항공79) / 이재평(재료84) / 이정돈(기계78) / 이정상(전자78) / 이정민(행정93) / 이정재(건축96) / 이정준(TS대학원04) / 이정호(전자73) / 이정훈(전자78) / 이종연(경영82) / 이종원(전자79) / 이주환(기계87) / 이준영(환경05) / 이준은(항공80) / 이준호(법학93) / 이지상(미디어01) / 이지원(경영학부11) / 이진선(경영대학원07) / 이창수(산공73) / 이창우(전산82) / 이창원(기계75) / 이창훈(기계87) / 이충식(기계77) / 이태희(의학94) / 이하영(기계81) / 이한구(기계85) / 이한규(기계80) / 이한석(경영86) / 이항숙(경영81) / 이항희(영문96) / 이현명(항공77) / 이현상(항공76) / 이형무(기계77) / 이형익(영문79) / 이호균(전자79) / 이화수(신소재공학06) / 이희영(경영대학원04) / 임경빈(산공81) / 임근찬(산공81) / 임동하(행정88) / 임명훈(경영94) / 임민호(산공77) / 임병엽(경제81) / 임생기(기계79) / 임석배(전산86) / 임성욱(기계89) / 임영무(전산81) / 임영준(산공74) / 임용백(경영81) / 임인재(항공83) / 임정혁(영문80) / 임종석(항공79) / 임종섭(영문79) / 임중환(전자80) / 임진규(산공79) / 임창규(전산82) / 임채중(기계93) / 임춘삼(기계77) / 임춘성(기계79) / 임태규(산공80) / 임평욱(항공80) / 임형재(컴공87) / 장기순(기계74) / 장병일(항공79) / 장병정(경제99) / 장상민(전자80) / 장선규(항공79) / 장용석(항공85) / 장용호(산공80) / 장준석(전자79) / 장직순(환경81) / 전병수(전산85) / 전성일(항공84) / 전성환(전자80) / 전승민(전산87) / 전재환(항공79) / 전진수(전자75) / 정규범(전자80) / 정규해(건설시스템공학02) / 정기정(항공73) / 정동열(전산81) / 정미숙(국문86) / 정민호(항공82) / 정방근(전자79) / 정성환(산공79) / 정승화(경영78) / 정연광(전자79) / 정연희(환경81) / 정왕진(영문79) / 정운규(기계80) / 정일구(산공77) / 정점래(TS대학원) / 정종래(항공03) / 정준모(항공90) / 정창경(영문79) / 정태화(환경81) / 정해만(기계79) / 정태준(항공79) / 정현용(경제99) / 정혜원(경영80) / 정희교(항공78) / 정희진(전자83) / 조걸훈(기계79) / 조경제(경영84) / 조규태(경영86) / 조길원(항공79) / 조동식(경영84) / 조두현(전자80) / 조무창(경영대학원47) / 조문준(행정86) / 조봉원(기계98) / 조성만(산업대학원03) / 조성태(영문80) / 조연제(전자79) / 조영록(기계81) / 조영호(전자87) / 조원익(경영85) / 조윤진(영문80) / 조익수(기계79) / 조중순(기계80) / 조중환(전자97) / 조중희(전자74) / 조해성(항공78) / 조형규(산공75) / 주동준(영문80) / 주민규(컴공96) / 주창원(기계76) / 주필상(전자79) / 지승규(산공79) / 지영교(기계80) / 지춘수(산업대학원09) / 진동환(기계85) / 진명호(전자77) / 차상훈(산업대학원) / 차환윤(항공80) / 채상욱(건축97) / 채일(불문80) / 최근배(항공73) / 최기원(전자81) / 최기혁(기계80) / 최만조(기계81) / 최문규(전자75) / 최문호(경영80) / 최병국(전자80) / 최병일(항공80) / 최병학(산공77) / 최성달(산업대학원) / 최승순(불문84) / 최신영(산공98) / 최영두(재료90) / 최영락(재료87) / 최영수(산공78) / 최용호(경영80) / 최원덕(환경81) / 최응선(기계78) / 최재승(경제95) / 최재은(자유진공) / 최재혁(경영대학원) / 최중욱(산공78) / 최중성(환경81) / 최중원(경제84) / 최희선(경영81) / 추동욱(산업대학원10) / 추병윤(전자80) / 표준성(전산82) / 한관희(산공78) / 한봉훈(산공86) / 한상준(기계77) / 한상철(영문81) / 한석근(기계85) / 한승호(산공00) / 한윤희(기계79) / 한중권(경영80) / 한진희(항공84) / 한태규(전자79) / 한호식(항공82) / 함건주(산공94) / 함경숙(항공86) / 함동일(산업대학원11) / 허기영(산업대학원) / 허려희(일반대학원04) / 허석수(재료84) / 허성철(수학93) / 현명주(공공정책대학원) / 홍관섭(환경86) / 홍기택(항공78) / 홍대하(경영79) / 홍덕표(항공77) / 홍민철(전자80) / 홍범준(경영96) / 홍봉수(수학85) / 홍석교(평생교육원) / 홍석표(기계78) / 홍성수(산공85) / 홍세경(전자78) / 홍순갑(기계78) / 홍지훈(컴공86) / 황교민(항공80) / 황덕모(경영79) / 황동식(항공79) / 황두섭(전자89) / 황민숙(불문79) / 황민하(경영82) / 황병철(전자78) / 황선영(기계81) / 황수연(항공04) / 황안일(산공86) / 황우식(재료93) / 황인국(산공79) / 황정환(컴공87) / 황창식(경영94) / 황충국(경영78) / (주)강봉(대표:양남문(TS대학원)) / (주)넷웍스(대표:이영규(산업대학원11)) / (주)대영엠텍(대표:박인천(산업대학원09)) / (주)성호스텐(대표:김기권(경영대학원01)) / (주)아이케이코퍼레이션(대표:안경렬(기계78)) / (주)에이피피(대표:강방권(화학90)) / (주)이포넷(대표:이득경(전자82)) / (주)제이티(대표:박종서(TS대학원))

일반

안기환 / 오성호 / 최병용 / 조중용 / ㈜임파크 / 최선정 / 송석례 / 권종희 / 소진식 / 임재수 / 정우건설 / 현 수 / 이지현 / 김인애 / 아모레연서 특약점 / 비엔비(테크주) / 박정웅 / 권우식 / ㈜한국푸앤코 / 안혜영(김충중)

학부모

강병희 / 강복선 / 강성오 / 강순덕 / 강신희 / 강중수 / 강철 / 강호식 / 고은경 / 객헌철 / 구미희 / 구수영 / 구자홍 / 구형자 / 권경섭 / 권성환 / 권순자 / 권영자 / 권오용 / 김경석 / 김경원 / 김경주 / 김경희 / 김광자 / 김규원 / 김규태 / 김근민 / 김금근 / 김동기 / 김동식 / 김명일 / 김명화 / 김미자 / 김민영 / 김병진 / 김봉식 / 김삼덕 / 김석중 / 김선민 / 김선미 / 김선옥 / 김선자 / 김성숙 / 김성호 / 김순복 / 김시태 / 김신옥 / 김연숙 / 김영서 / 김오남 / 김용주 / 김유익 / 김은실 / 김점순 / 김정구 / 김정욱 / 김정우 / 김정오 / 김정자 / 김종국 / 김중산 / 김중숙 / 김주욱 / 김준식 / 김중형 / 김진언 / 김태열 / 김태현 / 김현숙 / 김형선 / 김형준 / 김혜영 / 김홍석 / 김홍용 / 김희숙 / 나혜란 / 남현모 / 노농길 / 노지연 / 도성재 /

아주사랑

1-1-1 캠페인 기부자(2011.8~2012.1)

학부모

류윤희 / 류지현 / 박계선 / 박기표 / 박민진 / 박미도 / 박미란 / 박미순 / 박삼순 / 박상기 / 박상희 / 박성희 / 박수정 / 박승우 / 박연옥 / 박영두 / 박영만 / 박영식 / 박은영 / 박은옥 / 박인숙 / 박주현 / 박중수 / 박환수 / 방성주 / 방현천 / 배미애 / 배연옥 / 백남태 / 백석민 / 백용호 / 변희진 / 봉금희 / 서미애 / 서순화 / 서용재 / 서유내 / 설광수 / 성금숙 / 성대중 / 성점수 / 성태문 / 소귀섭 / 손문성 / 손보익 / 손인현 / 손재영 / 송명중 / 송미영 / 송순임 / 송윤희 / 송정미 / 송정석 / 송희상 / 신현기 / 심은주 / 안병립 / 안은옥 / 양기천 / 양승수 / 양원석 / 양윤정 / 양정만 / 여철현 / 오기영 / 오윤인 / 오창석 / 오형택 / 오호영 / 왕영숙 / 우은경 / 위홍환 / 유강하 / 유권중 / 유상열 / 유정현 / 유혜숙 / 윤민경 / 윤성택 / 윤성희 / 윤인중 / 윤주용 / 윤진섭 / 이경숙 / 이규환 / 이기복 / 이기원 / 이기훈 / 이대규 / 이동성 / 이동열 / 이명주 / 이미자 / 이봉석 / 이삼근 / 이상규 / 이상근 / 이성우 / 이성현 / 이수정 / 이순택 / 이승미 / 이식용 / 이영규 / 이영미 / 이영학 / 이윤근 / 이우영 / 이은숙 / 이은영 / 이은주 / 이의섭 / 이인경 / 이인규 / 이재려 / 이재양 / 이진희 / 이정수 / 이정순 / 이정옥 / 이종서 / 이지영 / 이진우 / 이진희 / 이태원 / 이현록 / 이현옥 / 이현택 / 임미경 / 임봉길 / 임서영 / 임선태 / 임인숙 / 장공진 / 장광열 / 장균 / 장남진 / 장선의 / 장소영 / 전도수 / 전상수 / 전주석 / 전현숙 / 정경희 / 정구영 / 정구창 / 정명신 / 정문기 / 정복길 / 정연수 / 정유진 / 정의돌 / 정인선 / 정재기 / 정진경 / 정청용 / 조규열 / 조규영 / 조진선 / 조한식 / 조현욱 / 주기영 / 주영천 / 진광선 / 차덕환 / 차영주 / 채경우 / 채명국 / 채영호 / 천명길 / 천순락 / 최경아 / 최만중 / 최명규 / 최미영 / 최상범 / 최성남 / 최수도 / 최순식 / 최영길 / 최영태 / 최윤영 / 최윤희 / 최인자 / 최일근 / 최재은 / 최중우 / 최현만 / 최현아 / 탁덕권 / 한정숙 / 한진희 / 허인영 / 허정미 / 허호우 / 홍영숙 / 홍정향 / 홍진선 / 황교숙 / 황명수

아경장학금 기부자(2011.8~2012.1)

권안석(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3기) / 김강민(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0기) / 김기권(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7기) / 김만수(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4기) / 김성원 (동문 기업 직원) / 김정임(아경장학재단 간사) / 김진광(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37기) / 김형균(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4기) / 문명식(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0기) / 박경주(경영대 교수) / 박대관(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0기) / 박만규(인문대 교수) / 박문희(회장 권오일)일동 / 박주연(경영대학원총동문회 간사) / 박현명(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7기) / 백성기(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0기) / 서창원(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39기) / 성사순(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37기) / 성열학(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6기) / 아경포럼(회장 정규수)일동(경영대학원총동문회 아경포럼) / 아주대경영대학원 교학팀(팀장 정기훈) / 안병대(아경장학재단 이사)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8기) / 안삼규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6기) / 윤호정(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6기) / 이근면(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17기) / 이의준(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37기) / 이태영(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7기) / 장정선(경영대학원 MBA_Global Campus 44기) / 전병찬(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35기) / 전은선(경영대학원 MBA_Global Campus 43기) / 정기상(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38기) / 조영호 (경영대학원장) / 최고46기 동창회(회장 김춘길)일동(경영대학원 최고46기 동창회) / 최근해(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8기) / 최성근(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3기) / 한재수(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8기)아경장학재단 이사장) / gc44기 동창회 (회장 우재도)일동(경영대학원 gc44기 동창회) / mc44기 동창회 (회장 전석철)일동(경영대학원 mc44기 동창회)

아주후원의 집(2011.8~2012.1)

가치있는법상(대표:방성숙) / 돈황갈비(대표:구복희) / 무교동유정낙지(대표:안병록) / 누누리(대표:서주희) / 명동사브사브칼국수(대표:신재숙) / 아주대보쌈집(대표:오상기) / 아주스크린골프존(대표:김원호) / 유니온플라워(대표:남하현) / 제일저게백반 (대표:송기수) / 춘하추동(대표:강민영) / 콩나물떡볶이(대표:오연숙) / 태화장(대표:박경숙) / 허수아비(대표:정재호) / 현경(대표:허용) / J BAR(대표:김준식)

1명의 선배가 달에 만 원씩기부하는 1-1-1 캠페인

감동을 더하는 <무한 아주사랑>

차곡차곡 쌓을수록 커져가는 아주인의 무한감동 1-1-1 캠페인은 계속됩니다.
선배님이 보내주신 1-1-1 캠페인으로 모금한 장학금은 철저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1-1-1 캠페인 참여하시는 방법

생각에만 머물지 마세요,
편리해진 방법으로 후배사랑을 보여 주세요

기부금 참여

온라인 약정서 또는 동봉되는 약정서를 쓰시면 1달에 1번, 1만원씩 선배님 통장에서 CMS 자동결제됩니다.

기부금 용도

재학생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안내 (대학발전본부) <http://ajousarang.ajou.ac.kr>
Tel : 031-219-2107~9 Fax : 031-219-1623
E-mail : ajousarang@ajou.ac.kr

